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36345

2008년 2월

교육학석사(특수교육)학위논문

청소년의 형제관계와 정서·행동문제의 관련성 연구

조 선 대 학 교 교 육 대 학 원

특 수 교 육 전 공

이 수 연

청소년의 형제관계와 정서 · 행동문제의 관련성 연구

A Study on Relationships between Sibling Relations and Emotional/Behavioral Problems in Adolescents

2008년 2월

조 선 대 학 교 교 육 대 학 원

특 수 교 육 전 공

이 수 연

청소년의 형제관계와
정서 · 행동문제의 관련성 연구

지도교수 이 승 희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특수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10월

조 선 대 학 교 교 육 대 학 원

특 수 교 육 전 공

이 수 연

이수연의 교육학 석사(특수교육)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2007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 V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 3
3. 용어의 정의 ····· 3

Ⅱ. 이론적 배경 ····· *6*

1. 형제관계 ····· 6
   1) 형제관계의 개념 ····· 6
   2) 형제관계의 특성 ····· 7
   3) 형제의 역할 ····· 8
2. 정서 · 행동문제 ····· 11
   1) 정서 · 행동문제의 정의 ····· 11
   2) 정서 · 행동문제의 분류 ····· 12
   3) 정서 · 행동문제의 원인 ····· 16
3. 형제관계와 정서 · 행동문제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 ····· 18

Ⅲ. 연구방법 ····· *23*

1. 연구설계 ····· 23
2. 연구대상 ····· 23
3. 연구도구 ····· 23
   1) 기초사항 질문지 ····· 23
   2) 형제관계 측정도구 ····· 24
   3) 정서 · 행동문제 측정도구 ····· 26
4. 연구절차 ····· 27

5. 자료분석 ····· 28

Ⅳ. 연구결과 ····· *30*

1. 형제관계 ····· 30
2. 정서 · 행동문제 ····· 31
   1) 정서 · 행동문제의 정도 ····· 31
   2) 정서 · 행동문제의 유형 ····· 34
3. 형제관계와 정서 · 행동문제의 상관분석 ····· 34
   1) 온정/친밀감과 정서 · 행동문제의 상관분석 ····· 36
   2) 갈등과 정서 · 행동문제의 상관분석 ····· 36
   3) 상대적 지위/권력과 정서 · 행동문제의 상관분석 ····· 36
   4) 경쟁의식과 정서 · 행동문제의 상관분석 ····· 37
4. 정서 · 행동문제에 따른 형제관계의 차이분석 ····· 37
   1) 정서 · 행동문제에 따른 온정/친밀감의 차이분석 ····· 37
   2) 정서 · 행동문제에 따른 갈등의 차이분석 ····· 38
   3) 정서 · 행동문제에 따른 상대적 지위/권력의 차이분석 ····· 38
   4) 정서 · 행동문제에 따른 경쟁의식의 차이분석 ····· 39

Ⅴ. 논의 ····· *44*

1. 형제관계 ····· 44
2. 정서 · 행동문제 ····· 45
   1) 정서 · 행동문제의 정도 ····· 45
   2) 정서 · 행동문제의 유형 ····· 46
3. 형제관계와 정서 · 행동문제의 상관 ····· 47
4. 정서 · 행동문제에 따른 형제관계의 차이 ····· 49

Ⅵ. 결론 및 제언 ····· *52*

1. 결론 ····· 52
2. 제언 ····· 53

참고문헌 ····· 55
부　　록 ····· 61

표 목 차

표<Ⅱ-1> ····· 13
표<Ⅱ-2> ····· 15
표<Ⅱ-3> ····· 22
표<Ⅲ-1> ····· 24
표<Ⅲ-2> ····· 25
표<Ⅲ-3> ····· 27
표<Ⅲ-4> ····· 29
표<Ⅳ-1> ····· 30
표<Ⅳ-2> ····· 31
표<Ⅳ-3> ····· 32
표<Ⅳ-4> ····· 34
표<Ⅳ-5> ····· 35
표<Ⅳ-6> ····· 40
표<Ⅳ-7> ····· 41
표<Ⅳ-8> ····· 42
표<Ⅳ-9> ····· 43

ABSTRACT

A Study on Relationships between Sibling Relations and Emotional/Behavioral Problems in Adolescents.

Suyoun Lee
Advisor : Seunghee Lee, Ph.D.
Major in Speci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re are a number of discussions to explain the causes of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of adolescents. This study aims at identify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sibling relations and emotional/behavioral problems in adolescents.

It targets 778 boy and girl students whose grades are 1, 2 and 3 from 8 middle schools in Gwangju. To measure the sibling relations, it uses Sibling Relationship Questionnaire produced by Furman and Buhrmester (1985) and modified by Park Yeong-Ae(1995). To assess the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it uses Korean Youth Self-Report(K-YSR; Oh, Lee, Hong, & Hah, 1998) developed by Achenbach(1991b), and standardized by Oh, Lee, Hong, & Hah.

This study analyses the data collected with a use of SPSS 10.1k and th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s are obtained to identify the sibling relations. To identify the degree of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it obtains the means of t-test scores, standard deviation, order and ratio of clinical range in each area, and frequency and ratio in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And to identify the correlations between sibling

relations and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it conducts a correlation analysis and to identify the difference in sibling relations, it conducts a t-test.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low average score is found in warmth/intimacy. In the warmth/intimacy area, the siblings do not have warm and intimate positive relations. In conflict area, they show higher average, which indicates negative sibling relations due to conflicts.

Second, the results of the study on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show that 151 of the 778 subjects, 19.4%, are clinical range in the total problematic behavior scale. The thing that needs specific attention is that thought problems following aggressive behavior have the higher clinical degree.

Third, the results of the study on the correlations on siblings relations and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show that there is a high correlation between sibling conflict, social problems, attention problems, delinquent behavior, and aggressive behavior and the more sibling conflict, the more aggressive behavior.

Fourth, the significant results of differences according to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show that the subjects in the clinical group who are withdrawn do not have intimate relations in comparison with those in the normal group, and siblings with thought problems have high warmth/intimacy than those without problems.

The more conflicts between siblings, the more total behavior problems, internalizing problems, externalizing problems, depression/anxiety, attention, and aggressive behaviors of the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And the subjects in the clinical group who have internal and physical problems do not show care and interests each other, and in respect to riverly including the cognition of preference, they show depressed and

anxious behaviors when parents show more affection and attention to other members.

Through the results above, this study finds that there is a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siblings relations and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of adolescents, and difference according to sub-factors and suggests that negative sibling relations may bring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that affect society and others seriously.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청소년기는 청소년 자신이나 부모에게 있어서 매우 어렵고 복잡한 인생의 주기이며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서 불안과 긴장,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 인격형성이 달라지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와 함께 신체적, 지적 측면의 여러 가지 변화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혼란과 좌절을 경험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청소년 문제행동을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행동양식 중 타인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서·행동문제는 타인과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사회적으로 질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타인과 사회에 부정적인 결과와 악영향을 끼치는 반사회적 행동유발과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는 않더라도 행위자가 사회적 부적응과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성격, 정서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

청소년 문제의 이유와 원인을 설명하는데 가족, 경제, 교육, 지역사회의 문제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일차적 사회화 기능을 수행하는 가족의 역할구조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가정 내에서의 가족구성원은 가장 기본적이고 영구적인 관계로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중요한 결정요인의 하나로 작용하며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교류의 관계로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김오남, 1994).

그 관계로 주목하여야 하는 관계는 형제관계인데 형제관계는 부모-자녀관계와는 다른 차원에서 아동의 성장 및 발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청소년은 형제관계를 통하여 자아에 대한 인식, 집단적 소속감, 연대감 등을 획득하고, 이러한 경험의 결과들은 개인의 정서 발달 및 지적 발달의 기반을 형성해 준다(박미진·김광웅, 2002). 형제관계는 부모와의 수직적인 관계와는 달리 수평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형제관계는 또래관계에서의 속성인 상호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상대방의 관점을 쉽게 이해하고 서로의 관심을 인식, 공유할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간의 연령차로 인해 부모-자녀관계의 속성인 보완성도 내포하게 된다(Dunn, 1983). 또한 형제관계를 통해 가족 밖의 다른 아동 및 대인관계의 기초가 되는 협동, 방어, 갈등, 경쟁, 지배의 원리를 학습하게 되며, 부모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무관심한 것을 대신하여 보충적인 이해와 관심을 제공하며 형제가 안고 있는 문제나 처한 상황을 더 잘 이해하는 효과적인 교사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놀이친구나 공부친구와 같은 동료적인 역할도 한다(박미진・김광웅, 2002). 그러나 형제관계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순기능으로서의 역할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형제관계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예: Dodge, 1980; Loeber & Tengs, 1986; Patterson, 1982)에 의하면 형제간의 적절하지 못한 모델링과 강화를 통해 공격적 행동이 증가한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청소년문제를 직시하여 많은 학자들이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정의와 발생되는 근본요인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 행동적, 심리적 동질성을 가진 몇몇의 하위 집단적 특성에 따라 어떤 점에 있어서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 행동을 함께 묶어 유형화하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으며 그 정의만큼이나 분류는 학자마다 그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Achenbach와 Edelbrock(1978)은 아동 청소년의 문제행동양상을 요인 분석하였는데 비교적 일관성 있게 추출되는 증후군으로 공격성, 과잉활동, 비행, 정신분열성, 불안, 우울, 사회적 위축, 신체증상 등을 제시하였다. 국내 아동을 대상으로 CBCL의 타당화 연구를 한 오경자와 이혜련(1990)의 연구에서도 12~16세 청소년이 주로 많이 나타내는 문제행동의 유형은 공격성, 불안, 비행, 사회적 위축, 우울 등으로 청소년기에는 내면화된 문제행동과 외현화된 문제행동이 서로 함께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로서 심리적 문제, 가정부적응, 학교부적응, 폭력, 유해약물복용, 성일탈행동, 범죄행동 등의 다양한 행동방식을 보이는데 있어서 그 요인을 찾아내기 위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의 발생요인을 자아 존중감, 도덕성, 성격적 특성, 인지적 특성 등의 개인적 요인과 가족관계, 교우관계, 학교환경 등의 환경요인과 같은 다양한 구조에서

찾아내려는 노력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형제관계가 서로에게 미치는 긍정·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협동, 방어, 갈등, 경쟁, 지배의 원리 등을 학습하게 되는 형제관계와 개인에게 나타나는 정서·행동문제와의 관련성 연구를 통하여 정서·행동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고 청소년의 바람직한 형제관계의 형성과 건전한 정신건강을 유지하도록 교육함에 있어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형제관계와 정서·행동문제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가지고 수행되었다.

1) 중학생들의 형제관계는 어떠한가?
2) 중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는 어떠한가?
3) 중학생들의 형제관계는 정서·행동문제와 상관관계가 있는가?
4) 중학생들의 형제관계는 정서·행동문제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용어의 정리

① 형제관계

본 연구에서 형제관계는 Furman과 Buhrmester(1985)가 제작한 형제관계척도(Sibling Relationship Questionaire: SRQ)에 포함 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개념으로 본다.

- 온정/친밀감(warmth/intimacy) : 온정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냉정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며 '정다운 마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친밀성은 사전적 의미로 지내는 사이가 아주 친하고 가까움으로 정의

한다(전인혜, 1999). 본 연구에서는 형제간에 서로를 위해 주며 돕고 의지하는 개념과 서로 간에 얼마나 속마음과 비밀스러운 대화를 하는가의 개념을 포함한다.

- 갈등(conflict) : 사전적 의미로 갈등이란 서로 불화하고 다투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전인혜, 1999). 본 연구에서는 형제끼리 속상하게하고 비겁하며 심술궂게 행동하는 개념과 형제끼리 화가 나거나 의견이 달라서 말다툼을 하는 의미를 포함한다.
- 상대적 지위(relative status)/권력(power) : 사전적인 정으로 상대적 지위/권력이란 현재 있는 위치에서 타인을 강제로 복종시키는 힘이라고 정의(전인혜, 1999)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형제간에 서로를 가르쳐주고, 어떤 일을 시키고 서로에게 명령하는가, 형제를 돌보고, 보살핌을 받고, 형제를 지배하고 형제의 지배를 받는 개념과 형제가 일을 지시하고, 어떤 일을 하게 만들고 명령하는 개념을 포함한다.
- 경쟁의식(riverly) : 경쟁의식의 사전적 의미는 남에게 지기 싫어 하는 마음이 강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전인혜, 1999).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아동자신과 형제 중 누구에게 더 사랑과 관심을 보인다고 지각하는가 하는 편애지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제간에 관심을 보이는 정도, 어머니에게 누가 더 사랑을 받는가 등의 개념을 포함한다.

② 정서・행동문제

본 연구에서 행동문제는 Achenbach(1991b)가 만11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들의 행동분제 유형을 파악하고 분류하기 위해 제작한 YSR에 포함되는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 문제, 비행, 공격성 등을 말한다. 또한, 위축, 신체증상, 불안/우울의 문제를 합하여 내재화 문제라고 하고, 비행과 공격성 문제를 합하여 외현화 문제라 말한다.

③ 정서・행동문제의 정도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K-YSR)는 미국판 YSR을 토대로 하여 크게 사회능력척도(Social Competence Scale)와 문제행동증후군 척도(Behavior Problem Scale)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제행동증후군 척도는 103개의 문제행동에 관한 항목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적절한 행동문항 16개 등 모두 11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변별력이 낮은 문항 2와 4를 제외한 총 117개 문항의 합을 말한다.

④ 정서・행동문제의 유형

본 연구에서의 행동문제의 유형은 K-YSR의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를 말한다.

- 내재화문제(Internalizing Problems) : 소극적이고 사회적으로 위축 된 행동, 신체적 증상 등 내재화 되고 과잉통제된 행동을 평가 하는 척도로 위축 척도와 신체증상 척도, 우울/불안 척도를 합하여 산출한다.

- 외현화문제(Externalizing Problems) :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공격적인 행동, 싸움, 비행 등 외현화되고 과소통제된 행동을 평가 하는 척도로 비행 척도와 공격성 척도를 합하여 산출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형제관계

1) 형제관계의 개념

인간이 생활하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가장 최초로 시작되는 관계는 부모-자녀의 관계, 형제관계이다. 부모-자녀와 같은 수직적 관계가 아닌 비교적 수평적 관계를 맺고 있는 형제자매는 독특한 개성을 가진 독립체로 성장하게 되는데(박미진・김광웅, 2002), 다른 어떤 인간관계보다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공통된 유전자, 문화, 환경을 공유하는 혈연관계인 형제자매도 부모로부터 똑같은 유전인자를 물려받는 것은 아니며, 같은 가족원으로부터 동일하게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는 가정 내에서 성격과 행동이 다르게 양육된다(Scarr & Grajek, 1982).

이러한 형제관계를 개념화하기 위하여 많은 학자들이 노력하며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형제관계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의 학자들의 의견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Bossard와 Boll(1960)은 형제관계란 형제간에 접촉을 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받는 관계라고 정의하였으며, Huston과 Robin(1982)은 형제관계의 인지적, 애정적 측면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형제간의 상호작용은 형제의 자극과 나머지의 형제의 반응에 의해서 형성되지 않고 한 형제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신념, 지식, 태도, 감정의 견지에서 지각되어 이것이 특정한 방법으로 반응하도록 한다고 하는 심리적인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정의하였다. 또한 형제관계를 혈연적 관련 상태 또는 상호 호혜적(reciprocal)관계로 이야기하는 Cicirelli(1985)는 형제관계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속적 반응과 상호교환의 과정을 포함하는 사회적 교환으로 정의하고 형제관계는 경쟁자, 선생님, 자극을 주는 사람, 도전자, 역할 모델, 동료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형제자매란 형제간에 접촉을 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는 관계라고 정의하였다.

2) 형제관계의 특성

형제자매의 상호작용은 형제관계가 다른 가족관계와 구별되어 본질상 더 평등함을 바탕으로 한다. 이를 통한 사회 인지적 발달은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가져오며(Abramovitch, Corter, Pepler & Stanhope, 1986), 형제자매에 대한 모방은 사회적·지적 능력을 발달시킨다(Wishart, 1986). 이와 같은 형제관계에는 다른 구성원들 간의 관계와 구별되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다.

첫째, 형제관계가 생물학적 유전을 공용하는 구성원들 사이에서 형성된다는 것이다. 형제는 같은 부모로부터 유전인자를 물려받으며, 매우 유사한 환경에 살고 있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일상생활에서 밀접한 경험을 나눈다. 형제간에는 약 50%의 유전인자를 공유하고 있는데 Scarr와 Grajek(1982)은 형제의 99%이상이 33-99%정도의 공통된 유전자를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둘째, 형제들은 다른 어떤 관계만큼보다 형제관계를 유지할 의무를 갖고 있으며(Walters, 1982), 이들 관계는 동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도어 인생주기 전체를 걸쳐 지속되므로 대부분의 다른 인간관계보다 오랫동안 유지된다.

셋째, Piaget(1965)와 Sullivan(1953)에 의하면 아동간의 상호작용은 호혜성(reciprocity)을 특징으로 하며, 아동-성인 간의 상호작용은 상보성(complementarity)을 특징으로 하는데 형제관계는 동료관계의 특징인 호혜성을 띠면서도 연령차이 때문에 상보성도 함께 포함할 수 있다(Dunn, 1983).

네째, 형제자매관계는 고립되어 발생하지 않는다. 형제관계가 형성되는 가족 안에서는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형제관계라는 세 가지 구조가 존재하므로 외부적 자극 단독의 영향에 의해서보다는 다른 하위 구조들과 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형제의 지각, 감정, 그리고 행위들은 다른 하위 구조들과 관계망 안에서 고려되어져야 한다(Schvaneveldt & Ihinger, 1979).

다섯째, 형제자매관계 구조 안에서 특별한 관심들, 지리상의 근접성(성인기 이후), 연령, 성, 터울과 같은 형제구조변인들에 의해서 형제자매의 하위구조가 존재하게 된다. 이들은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둘 이상의 형제자매연합을 구성하든가 동맹을 형성한다(Bank & Kahn, 1975).

여섯째, 형제관계는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반영한다(Abramovitch et al., 1986). 모방은 사회적 지적능력의 발달을 의미하는데 아동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어른보다 형제관계를 더 모방한다(Wishart, 1986).

그러나 형제자매관계 역시 다른 관계들과 마찬가지로 발달적 단계를 겪는다. 즉 초기 형성단계, 관계의 유지관계 그리고 와해관계를 거치므로 형제자매 관계가 대부분의 다른 인간관계보다 오랫동안 지속되기는 하나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불변적으로 지속된다고 말할 수 없다(홍연림, 1999).

3) 형제의 역할

가족 역할이란 가족집단을 사회의 일부분으로 간주하고 가족원의 지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행동양식을 일컫는 것으로(유영주, 1989) 한 가족의 중요한 구성원인 형제 역시 성별, 연령 등에 따라 형제의 역할이 부여된다. 즉 형제들은 서로에게 어떤 기준 혹은 모델이 되어주기도 하며,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보완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현실세계의 이해를 돕기도 한다. 또한 비슷한 존재로서 서로에게 자극이 되기도 하며, 빈번한 충돌과 싸움 속에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익히게 된다(이지선, 1994). 형제관계는 부모-자녀관계와는 다른 규칙과 규범에 의해 작동하므로 형제는 더욱 다양한 역할들을 서로의 사회화에 효과적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형제의 역할은 놀이친구 및 공부친구, 교사 및 학습자, 보호자 및 의존자 그리고 경쟁자의 역할로 구분될 수 있다(유영주, 1989).

첫째, 놀이 친구 및 공부 친구의 역할을 습득한다. 형제들은 많은 시간을 함께 지내고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Abramovitch et al., 1986) 놀이친구・공부친구의 역할을 습득하게 되는데 이러한 역할의 습득은 또래간의 놀이에서 나타난다. 외동아는 친구의 관심과 무관하게 자신이 재미있어하는 놀이만 하는데 비해 형제아는 여럿이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를 더 많이 한다(Jiao, Ji, & Jing, 1986). 즉 형제아는 형제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놀이 친구로서의 역할을 습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래관계에서도 잘 적응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같이 놀고 서로의 필요를 인식하면서 형제자매는 강한 애

착을 느끼고 미래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된다. 또한 놀이를 통해 각자의 경험을 반영하고 해석하며 의미 있는 나름대로의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협동심과 지적 기술을 개발한다(유영주, 1989).

둘째, 교사 및 학습자로서의 역할이다. 형제자매는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서로를 가르친다. 일반적으로 형이 동생을 가르치는 입장이 되고, 행동으로 시범을 보이며, 여러 가지 강화행동을 통해 동생의 행동을 조정하며 형제는 매일 접촉을 하므로 많은 대화를 하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역할을 한다(Cicirelli, 1972). 대개는 손위 형제가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장녀는 어린 동생들의 가장 좋은 교사일 뿐 아니라 학습과정의 촉진자 역할을 한다(Azimitia & Hesser, 1993). Zajonc와 Markus(1975)에 따르면 형제교육은 가르침을 받은 형제의 지적 발달에도 많은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가르치는 형제에게 있어서도 도움을 주게 되어 형제를 가르치는 경험이 아동의 지적 발달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보았다. 장자녀는 특히 동생들을 가르쳐 본 어릴 때 경험으로 보다 어른스럽고 보호적이며 성취 지향적이며 사물을 가려내고 개념을 획득하는 정도가 달라진다. Cicirelli(1972)의 연구에 의하면 여아는 특히 성숙된 개념을 잘 취득하고 배울 뿐 아니라 일반원리로부터의 추론, 설명, 정의, 묘사, 논증, 예증, 실례의 선택 등을 잘하여 동생에 의해 좀 더 효과적인 교사로 지각되었으며 여형제로부터의 지도는 손아래 형제에 의해 기꺼이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손위형제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주시하며 모방하려는 학습자의 태도를 나타낸다(Lamb, 1978). 또한 Lamb(1978)에 의하면 동생의 빈번한 모방은 단순히 손위형제가 모델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모방을 통해서 형제간에 점차 우호적이고 호혜적인 상호교환이 형성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한다.

셋째는 보호자와 의존자의 역할이다. 형제는 부모의 부재를 보완하는 존재(Bryant, 1989)로서 손위 형제가 많거나 형제간 터울이 클 경우에 형제에 의한 돌보기가 많이 행해졌으며 특히 여아가 손위 형제일 경우 동생을 책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Schvaneveldt & Ininger, 1979). 이러한 역할은 손위 형제의 성별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는데 손위형제가 형일 경우는 동생을 지배하려는 경향을 많이 보이고(Berndt & Bulleit, 1975), 누나일 경우는 동생과

대화도 더 많이 하고 민감하고 기술적으로 상호작용 한다고 한다(Cicirelli, 1972). 형제 돌보기는 돌보는 형제나 돌보아지는 형제 모두에게 있어서 풍부한 사회적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며 사회적, 책임적, 양육적 행위에서 증진을 가져와 다른 아동과의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Dunn, 1983).

넷째로 경쟁자의 역할을 들 수 있다. 형제간의 경쟁을 정신분석학의 출현과 함께 아동발달에서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Adler(1959)는 손위형제의 경우 동생의 출현으로 인해 가족의 관심을 상실하면서 경쟁심을 경험한다고 했고 Dunn과 Kendrick(1982)도 첫째 아동이 동생보다 광범위한 정도(45-100%)의 적대감을 표현한다고 보고하여 대부분의 손위형제가 더 많은 질투심을 보이며 혼성보다 동성의 형제간에 이러한 현상이 더욱 뚜렷하다고 한다.

이외에도 Abramovitch와 그의 동료들(1986)은 학령전기 아동이 그들의 형제간에서 적대적이고 반항적인 행위들을 보인다고 밝혀 형제에 대한 질투심이 존재함을 추론할 수 있다. 형제자매간의 경쟁의식과 질투는 당연한 것이다. 남자형제들끼리의 갈등이 더 심각하나 여자형제들 역시 그 형식은 다를지라도 심각하게 싸우는 경우가 많다. 차자녀의 출생으로 부모의 관심과 애정을 빼앗겼다고 느끼는 장자녀의 열등의식으로 생기는 적대적인 경쟁심이 형제자매 간 상호작용에서 어떻게 자신의 힘이나 영향이 작용하는가를 학습하기도 한다. 즉 형은 명령하는 지배적 행동으로 동생의 권리를 박탈하며 동생은 울고 항변하며 도움을 구하거나 고집을 부리기도 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유영주, 1989).

손위형제가 손아래형제의 교사 역할을 한다는 점에 더해서, Hall과 Lindzey(1965)는 어린 형제들은 손위형제의 성에 따른 특수한 특성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어린 형제의 성격특성에 손위형제의 성이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Hodges(1961)의 연구에서도 누나를 가진 남아는 종종 또래들 사이에서 여자 같은 아이로 통한다는 결과를 보여 주어 손위형제의 성별이 손아래형제의 특성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아동은 형제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은 물론 상

대방의 형제의 역할도 학습하게 된다. 또한 자신과 상대방의 역할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기대는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게 함은 물론 타인이 자신에 대해 갖는 기대도 예측하게 한다(Brim, 1968). 따라서 형제는 서로 역할 관계를 이루면서 자신에 대해 알게 될 뿐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를 이해하는 능력을 발달시키게 된다. 최근 형제관계 연구들은 어떻게 형제자매관계들이 서로 유사하게 혹은 다르게 성장하는가 하는 점(Damon, 1989)에 관심을 갖는데 같은 가정에서 태어난 형제자매끼리라도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성장한다. 즉, 같은 형제자매라고 해서 반드시 똑같은 형제관계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혈연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로부터 똑같은 유전인자를 물려받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볼 때, 형제자매들은 서로의 개별적인 특성에 의해서 혹은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 형제관계를 다르게 경험하게 되며 따라서 형제자매들은 인성, 적응수준, 혹은 관심사에 있어서 다른 모습을 갖는 개인으로 성장하게 된다(Daniels & Plomin, 1985). 즉, 형제자매 관계의 유사성과 특이성은 부부관계나 부모자녀 관계 못지않게 가족 내외에서 중요한 기능을 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심은 가족의 이해에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정서・행동문제

1) 정서・행동문제의 정의

우리나라 특수교육진흥법(2005, 일부개정)에 따르면 정서장애아란 다음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을 나타내는 자라고 할 수 있다.

① 지적・신체적 또는 지각적인 면에 이상이 없음에도 학습 성적이 극히 부진한자
② 친구나 교사들과의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문제를 지니는 자
③ 정상적인 환경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낸 자
④ 늘 불안해하고 우울한 기분으로 생활하는 자

⑤ 감각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언어·인지능력 또는 대인관계에 결함 이 있는 자, 그리고 사물이나 사건 처리능력에서 결함이나 자폐성 경향을 나타내는 자

미국 장애인교육법(1997)의 정서장애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정서장애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교육적인 수행에 큰 역기능적 영향을 미치는 다음의 특성 중에서 1개 또는 2개 이상을 나타내는 상태를 의미한다.

- 지적·감각적 또는 신체적 요인으로는 규명될 수 없는 학습의 무능력
- 동료나 교사들과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를 형성 유지하는 능력의 결여
- 정상적인 상황 하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표현함
- 항상 불행감과 우울감을 느낌
-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정서적 장애 때문에 신체적인 통증이나 심한 공포를 느낌

② 정서장애는 정신분열증 또는 자폐증을 포함한다. 그러나 정서적 장애라고 판명되지 않은 사회부적응아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정서·행동문제의 분류

(1) 임상적 접근에 의한 분류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분류체계는 미국정신의학회가 발행한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이다. <표 Ⅱ-1>은 DSM-Ⅳ-TR(APA, 2000)의 17개 주요범주 중 '일반적으로 유아기, 아동기, 혹은 청소년기에 처음 진단되는 장애'로 제시된 진단범주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DSM은 17개 주요범주로 나뉘어져 있고 이 주요범주들은 다시 하위범주들로 분류되는데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다른 진단범주들의 정신분열증, 기분장애, 불안장애, 섭식장애, 그리고 의학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들이 있다.

<표 Ⅱ-1> 일반적으로 유아기, 아동기, 혹은 청소년기에 처음 진단되는 장애

A. 정신지체
  1) 경도 정신지체
  2) 중등도 정신지체
  3) 중도 정신지체
  4) 최중도 정신지체
  5) 불특정 정신지체
B. 학습장애
  1) 읽기 장애
  2) 산술 장애
  3) 쓰기 장애
  4) 불특정 학습장애
C. 운동기능 장애
  1) 발달성 근육운동조정 장애
D. 의사소통장애
  1) 표현성 언어장애
  2) 혼재형 수용-표현성 언어장애
  3) 음성학적 장애
  4) 말더듬이
  5) 불특정 의사소통 장애
E. 전반적 발달장애
  1) 자폐장애
  2) 레트장애
  3) 아동기 붕괴성 장애
  4) 아스퍼거 장애
  5) 불특정 전반적 발달장애
F. 주의력 결핍 파괴적 행동장애
  1)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
  2) 품행장애
  3) 반항성 장애
G. 급식 및 식이장애
  1) 이식증
  2) 반추장애
  3) 급식장애
H. 틱장애
  1) 뚜렛장애
  2) 만성적 운동/음성 틱 장애
  3) 일과성 틱 장애
  4) 불특정 틱 장애
I. 배설장애
  1) 유뇨증
  2) 유분증
J. 기타장애
  1) 분리불안장애
  2) 반응적 애착장애
  3) 선택적 함구증
  4) 상동증적 운동장애

출처: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Diagnostic statistic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text rev. ed.). Washington, D.C.: Author.

(2) 경험적 접근에 의한 분류

임상적 접근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경험적 접근은 행동문제들의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통계적 기술을 사용하다. 경험적 접근의 형식은 응답을 하는 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이 어떠한 특정행동을 보이는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얻고 수량화 한다. 예를 들어 '0'은 아동이 어떤 특성도 보이지 않는 경우, '1'은 특징이 보통 정도로 나타나는 경우, '2'는 특징이 분명히 나타나는 경우이다. 수집된 자료를 통해 통계를 적용하여 분석하는데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으로 문항들 간의 상관관계에 기초하여 문항들 간의 상관이 계산되고 함께 발생하는 문항들의 집단이 나타나는데(Achenbach, 1998), 이런 집단을 요인 혹은 군집이라고 할 수 있다. '증후군'이라는 용어는 경험적 혹은 임상적 판단 절차에 의해 확인된, 함께 출현하는 행동들을 기술하는데 적용한다(정명숙・손영숙・정현희, 2004).

경험적으로 규정된 증후군을 찾아내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많은 노력에 의해 광의의 행동과 특징을 나타내는 군집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첫 번째 군집은 외현화, 과소통제, 혹은 품행장애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러졌고 그 특징에는 싸움, 성질부리기, 불복종, 파괴 등이 나타나며, 두 번째 군집은 내면화, 과다통제, 혹은 불안-위축과 같은 명칭으로 불러졌고 그 특징으로는 불안, 수줍음, 위축, 우울 같은 특징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요인을 추출하는 도구로 CBCL과 YSR이 있다. 아동행동체크리스트(Child Behavior checklist: CBCL)는 4~18세 아동의 부모들이 작성할 수 있고(Achenbach, 1991a), 청소년자기보고(Youth Self-Report: YSR)는 11~18세 청소년들이 스스로 응답하는 평가도구이다(Achenbach, 1991b). 이 검사 도구는 내재화나 외현화 같은 넓은 범위의 증후군 뿐 아니라 좁은 범위의 8개 증후군들을 발견하였으며 그 증후군은 <표 Ⅱ-2>에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분류에 대한 차원적 접근은 아동과 청소년을 몇 가지 차원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몇 가지 면에서 DSM의 임상적 접근과는 다르다. 두 접근 간의 첫 번째 차이점은 어떻게 장애의 집단들이 정의되고 형성되는가에 있다. 즉, 경험적으로 정의되는 것과 임상적 동의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다. 두 번째 차이점은 분류에 대한 경험적 접근에서는 문제를 범주적으로 보지 않고

차원적으로 보는 것으로, 개인 간의 차이가 질적인 것이 아니라 양적인 것이며, 정상과 비정상 간의 차이도 종류에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라는 것을 의미한다(Achenbach, 2000). 분류에 대한 경험적 접근에서는 또한 개별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를 판단하기 위한 준거로 정상표본으로부터 얻어진 자료를 활용한다.

<표 Ⅱ-2> CBCL, YSR의 8가지 증후군과 대표 문항

내재화 증후군		
위축	**신체증상**	**불안/우울**
혼자 있음	피곤	잘 운다
수줍음	몸살	겁, 불안
위축	복통	슬픔, 우울
혼합된 증후군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문제**
어린행동	헛것을 들음	주의집중문제
놀림받음	헛것을 봄	안절부절 못함
아이들이 싫어함	이상한 생각	충동적
외현화 증후군		
비행	**공격성**	
가책 없음	남을 괴롭힘	
나쁜 친구	남의물건 파괴	
집에서 도벽	싸움	

출처 : Wicks-Nelson, R., & Israel, A. C. (2000). *Behavior Disorders of Childhood* (4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Prentice-Hall. (p. 98).

3) 정서・행동문제의 원인

정서・행동장애는 한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정서・행동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대체로 학자들의 다양한 분류를 종합해 보면 생물학적인 요인으로서의 내적인 요인과 가정과 사회, 학교와 같은 외부환경으로서의 요인이 적절하게 조화되지 않았을 때 정서행동장애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크게 생물학적, 심리적, 가족적, 사회적 원인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정서・행동문제를 생물학적 요인으로서 보는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분류를 통해 정서・행동문제를 이야기 하였는데 Kauffman(1989)은 생물학적 관점에서 행동은 생화학적, 신경학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세부적으로 유전, 아동의 기질, 뇌손상, 영양 손실, 생화학적 불균형, 신체적 질병이나 장애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이론과 의견을 같이 하는 많은 학자들의 이론을 찾아보면, Kagan(1984)은 사람에게는 기질이라고 불리는 출생 시부터 지니고 태어나는 행동양상이 있으며, 그 기질에는 까다로운 기질, 순한 기질, 둔한 기질 등이 있으며, 모든 아동은 출생 시 서로 다른 기질을 지니고 태어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행동 발달에서 유전적인 영향은 복잡하게 작용하는데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적응하는데 환경을 조작하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며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과 사회적・정서적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줌과 동시에 유전프로그램은 개인별 특성을 다르게 만드는 데도 기여한다(정명숙 외, 2004). 또한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비롯되는 성별에 따른 장애 발생의 차는 생후 일찍부터 나타나는데 문제행동과 연관될 가능성이 크다(Weinberg, Tronick, Cohn, & Olson, 1999). 남자는 여자에 비해 생물학적으로 장애에 더 취약한 편이며, 정서표현, 행동통제,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성역할 사회화는 다른 행동문제들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또, 남자와 여자는 무질서한 환경, 스트레스, 부모의 병리 등으로부터 서로 다른 영향을 받을 수 있다(Cicchetti & Sroufe, 2000). 이와 같은 장애 발생에서 성별의 차이는 장애가 남성과 여성의 경우 각기 달리 표출된다는 사실이 장애를 정의하는 방식과 결합되면서 인위적으로 나타난 것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자가 공격성을 나타내는 비율이 남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여성이 공격성의 정의에 들어 있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라고 주장되고 있다. 공격성의 정의가 여성의 공격성에 고유한 행동을 포함할 경우에 증가할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Wicks-Nelson & Israel, 2003).

둘째,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정서·행동발달은 적응이든 부적응이든 모두 심리사회적 맥락의 영향을 받으며 그 안에서 일어난다. 생태학적 모형에서는 청소년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환경의 영향 안에서 존재하며 이러한 환경의 영향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한 가지 환경적 요인이 독자적으로 정서·행동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빈곤, 학대, 방치, 부모의 스트레스, 일관적이지 못한 기대, 사회적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은화, 2007). 심리적인 원인으로서 개인의 본능적이 충동과 그와 관련된 감정들은 정서·행동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부정적인 감정은 정서·행동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요인으로서 이러한 감정을 유발시키는 갈등요인은 생물학적 본능적 충동과 사회문화적 요구 사이의 상반된 충동이 동시에 나타난다(추정선, 2005).

셋째, 가족적 요인은 정서행동장애에 대한 단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다른 요인들과 함께 상호작용 함으로써 영향을 미치는데 즉, 가족의 구성원인인 부모, 형제 등 가족 간의 건전하고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통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가족과의 애착을 느끼고 그 구조 안에서의 역할들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적절하지 못한 부모의 양육방법과 부정적인 형제·자매간의 관계에 의하여 정서·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가정 내의 부모의 폭력적인 양육방법, 부모의 이혼, 형제·자매간의 갈등의 요소가 많을수록 아동들은 공격적이고 파괴적이며, 정신적으로 위축된 행동과 함께 우울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부모에게 학대 받은 아동들은 우울증과 같은 내재적 문제와 품행장애와 같은 외현적 문제를 모두 포함한 다양한 정서·행동장애를 보인 위험을 지니게 된다(Windom, 1997).

넷째, 사회적 요인으로 살펴보면 생물학적 요인이나 가족적 요인과 마찬가지로 학교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이 아동의 정서 및 행동문제를 일으킨다는 단순한 인과론에 대해서는 입증하기 어렵지만, 아동의 기질과 사회적 능력 등

이 또래나 교사의 행동과 상호작용하면서 정서·행동문제를 일으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이소현·박은혜, 2006). 학교의 일차적 기능은 사회에 축적된 지적 기술과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며, 이차적으로 사회적 규범과 가치를 전달하고 아동을 사회화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학교는 또래와의 상호작용,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한 관계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며 갈등관계를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학급활동의 참여부족, 낮은 학업수행으로 이어진다(Wicks-Nelson & Israel, 2003).

이상에서와 같이 정서행동장애의 원인은 다양한 측면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원인에서 가족요인을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포함하고 있다. 가족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자녀관계의 수직적 특성뿐 아니라 형제관계 즉, 수평적 특성에 대한 연구도 정서·행동장애의 원인을 찾아내는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형제자매 관계는 가정에서 경험하는 또 하나의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형제자매들과의 수평적 인간관계를 통해 협상과 협동, 경쟁방법을 배우게 되고, 동료집단을 형성하여 복종을 배우면서 체면을 유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통해 적응력과 인간관계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또한 형제들은 사랑과 관심을 공유하는 것을 배우고 서로에 대한 인식을 통해 개별화와 개인적 정체의식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받게 된다(유영주, 1989). 그러나 가족관계의 많은 연구를 살펴보면 형제관계는 부모-자녀 관계에 비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오지 못하였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 형제관계 자체의 이해를 위한 개념모형들이 제시되면서 형제관계의 연구와 부모자녀 관계연구와의 연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게 되었다(박영애, 1995). 이와 같이 정서행동장애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을 고려하여 정서·행동장애 아동에 대한 직접적 서비스 뿐 아니라 부모 및 가족에 대한 개입을 포함한 다차원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시사된다고 할 수 있다.

3. 형제관계와 정서·행동문제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

김선미(1995)는 인천시내 거주한 남녀 인문계, 실업계 고등학교 2학년에 대학 중인 277명을 표집하여 학생청소년이 지각한 가족 관계와 비행과의 상관

을 보고자 하는 연구를 실시하여 부모의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형제자매 관계간의 상관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학생청소년이 지각한 긍정적 가족관계도에서 자신의 가족관계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학생청소년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학생청소년이 많게 조사되었는데 남자청소년보다 여자청소년이 자신의 가족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형제자매관계의 비행 간의 관계는 유의한 수준에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행의 유형으로 상관을 보면 사회질서비행과 성지위비행을 제외한 대인비행, 대물비행, 일반지위비행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청소년 비행에 있어서 성에 따른 차이를 볼 때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더 많은 비행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김선미(1995)는 가족관계와 비행과의 유의미한 상관으로 학생청소년은 자신의 가족구성원들과의 상호관계를 나쁘게 인식하면 할수록 비행을 더 유발하므로, 청소년의 비행은 청소년 자신에게서만 원인을 찾을 것이 아니라 가족체계 내에서 즉, 가정의 심리적 환경인 가족관계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타당하며 청소년 비행의 예방 및 선도에 있어서의 가정의 역할이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노길미(1998)의 연구에서는 소년원에 재원중인 만 12세에서 만 20세 미만의 남녀 청소년 300명과 수도권 지역의 일반 남녀 중·고등학생 667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관계와 비행경험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성별과 연령에 따른 가족 관계 지각의 경우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그들의 가족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한다는 연구결과(김선미, 1995)와는 달리 남녀 간에 가족관계 지각양상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형제자매관계의 경우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긍정적으로 지각하였다. 특이한 연구결과는 형제자매의 경우 청소년이 그들의 형제자매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전체 비행경험정도는 높았으며 특히 폭력비행, 일반지위비행, 성지위비행, 사회질서비행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그 동안의 형제자매관계와 비행과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반대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형제자매관계가 혈연에 의해서 맺어진 영속적 관계이며 한 가정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부모와의 관계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반면, 연령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친구관계와 비슷한 성격을 지니는데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사회적 판단 능력이 미숙한 청소년기에 부모의 적절한 지도 없이 이루어지는 형제자매간의 상호작용은 비행행동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였다. 형제자매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비행경험정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은 또래집단과 같은 형제자매관계의 특성과 최근 가족구조가 핵가족화하면서 형제자매수가 2명 내지 3명인 경우가 많으므로 서로의 행동에 대해 지지를 할 수 있는 교류가 형성된 것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고 있고 부모간의 불화는 오히려 형제자매간의 연대를 강하게 하는 작용을 하여 서로의 관계는 좋으나 다른 가족문제들의 영향을 받아 비행으로서의 가능성을 촉발시킬 수 있으므로 형제자매관계에 대한 청소년기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전인혜(1999)는 초등학교 DSM-Ⅲ-R의 진단기준과 지능평가 등의 심리결과에 따라 주의력결핍 과잉활동장애로 진단 받은 3-6학년의 40명의 아동과 비교집단(정상집단)의 대상 또한 40명으로 선정하여 비교 연구하였다. 형제관계척도를 이용한 검사에서 하위영역 중 온정/친밀성에 있어서는 과잉행동장애 아동의 집단에 비하여 정상집단 아동의 평균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쟁에 있어서 또한 정상집단 아동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정상집단의 아동이 더욱 부모에게 인정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정상집단에 비하여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집단이 갈등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정상집단아동에 비하여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은 일반적으로 가족 내에서 형제를 더욱 부정적 존재로 인식하며, 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언으로 후속연구에서의 가족 내의 역동과 형제관계와의 관계, 성별, 나이와의 연관성 등과 같은 다양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김민정(2001)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301명의 남녀아동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로 공격성에서의 성차를 보면, 남아가 여아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형제자매관계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아동의 공격성은 형제자매관계가 긍정적이면 덜 나타나지만, 부정적이면 높게 나타났다. 형제자매관계의 상대적 영향력을 볼 때, 부정적 형제자매관계가 긍정적 형제자매관계보다 남녀아동의 공격성에 더 커다란 영향을 미

쳤다. 즉, 형제자매관계가 긍정적일 때 공격성이 덜 나타나기보다 부정적일 때 공격성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여아가 남아보다 형제자매관계와 공격성이 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아가 남아보다 형제자매관계가 긍정적일수록 공격성은 덜 나타나고, 부정적일수록 공격성은 더 많이 나타났다고 제시하였다.

정인선(2006)은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에 재학 중인 366명의 남녀아동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로 형제관계 갈등요인에 의해 공격성은 높은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공격성 발달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은 형제사이의 긍정적 관계에 의한 것보다 부정적 관계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형제간에 다툼이나 갈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형제관계와 아동의 충동성 및 공격성과의 관계를 나타낸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형제관계에 긍정적 발달을 가져올 수 있는 온정·친밀성이 충동성의 감소에는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격성과는 어떠한 관계도 나타나지 않는 다른 양상을 보여 주었다. 반면 형제관계의 갈등요인에 의해서 아동의 충동성 및 공격성 모두가 발달할 수 있음이 나타났다는 결과는 아동이 지각한 형제관계가 갈등적인 성질을 보일수록 아동은 반항적이고 불 안정적이며, 자존감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고와 맥을 같이한다고 시사하였다.

이와 같이 관련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형제관계는 비행, 주의력결핍, 공격성 등의 정서·행동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발표년도별로 요약하여 제시하면 <표 Ⅱ-3>과 같다.

<표 Ⅱ-3> 관련 선행연구 목록

번호	저자(년도)	논문제목	내 용
1	김선미 (1995)	가족관계와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	가족관계와 비행과의 유의미한 상관으로 학생 청소년은 자신의 가족 구성원들과의 상호관계를 나쁘게 인식하면 할수록 비행을 더 유발하므로 청소년 비행의 예방 및 선도에 있어서의 가정 역할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2	노길미 (1998)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관계와 비행과의 관계	형제자매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비행경험정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특이한 결과로 지목하며 부모간의 불화는 오히려 형제자매간의 연대를 강하게 하는 작용을 하여 서로의 관계는 좋으나 다른 가족문제들의 영향을 받아 비행으로서의 가능성을 촉발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3	전인혜 (1999)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아동과 정상아동의 형제관계 비교 연구	형제관계척도를 이용한 조사연구에서 온정/친밀과 경쟁의식은 정상집단의 아동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의 아동보다 평균이 높게 나왔으며 갈등에 있어서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의 아동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4	김민정 (2001)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관계와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	형제자매관계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아동의 공격성은 형제자매관계가 긍정적이면 덜 나타나지만, 부정적이면 높게 나타나며 형제자매관계의 상대적 영향력을 볼 때, 부정적 형제자매관계가 긍정적 형제자매관계보다 남녀아동의 공격성에 더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시사하였다.
5	정인선 (2006)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관계	공격성 발달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은 형제사이의 긍정적 관계에 의한 것보다 부정적 관계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형제간에 다툼이나 갈등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학생의 형제관계의 특성과 정서· 행동문제의 정도와 유형을 분석하고, 형제관계가 정서·행동문제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G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 1·2·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G광역시 소재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 중 2단계 군집무선표집(two-stage cluster random sampling)을 통하여 총 911명이 선정되었다. 즉, 본 연구에서는 G광역시내 전체 84개 일반중학교 중 8개교(표집비율 10%)를 무선표집한 후 각 학교의 1·2·3 학년별로 한 학급씩을 다시 무선표집하였다. 선정된 학급마다 당일 출석한 학생들 전원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한 결과 총 911부가 회수되었다(학급에 따른 정원의 차이로 인하여 출석한 학생 전원으로부터 회수된 질문지 수를 연구대상 수로 가정하였음). 회수된 질문지를 검토한 결과 778부가 최종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는데 최종연구대상에 대한 기초사항을 제시하면 <표 Ⅲ-1>과 같다.

3. 연구도구

1) 기초사항 질문지

중학생의 형제관계와 정서·행동문제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학년·형제자매의 수에 관한 문항들이 포함된 질문지를 구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부록>에 제시되었다.

<표 Ⅲ-1> 대상 학생의 기초사항

변 인	구분	사례 수(*n*)	비율(%)	계(%)
성 별	남	418	53.7	778(100.0)
	여	360	46.3	
학 년	1학년	265	34.1	778(100.0)
	2학년	244	31.4	
	3학년	269	34.6	
형제·자매 수	1명	476	61.2	778(100.0)
	2명	251	32.3	
	3명	40	5.1	
	4명	8	1.0	
	5명	3	0.4	

2) 형제관계 측정도구

형제관계 측정도구는 Furman과 Buhrmester(1985)가 제작한 이후 아동 및 가족분야의 연구에서 다른 척도들에 의해 비교적 널리 사용되어 온 형제관계 척도(Sibling Relationship Questionaire ; SRQ)를 박영애(1995)가 번안한 것을 기초로 하였다. 이 SRQ는 심층면접을 통해 형제관계의 질에 관한 기초정보를 수집한 후 그 내용을 분석해서 질문지 제작에 사용한 것으로서 척도로서의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추고 있어서 독립변인이나 종속변인으로서의 형제관계를 측정하는 연구도구로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Brody & Stoneman, 1990).

본 연구에서는 온정/친밀감, 갈등, 상대적 지위/권력, 경쟁의식 4개요인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구를 송현정(1998)이 재선정한 22문항을 사용하였다. 4개 하위요인 총 22문항으로 구성된 형제관계 척도는 5점 척도로서, 자

신의 형제관계에서 문항에 진술된 내용들이 얼마나 자주 또는 많이 발생하는가에 따라서 '아주 많이 한다' 또는 '아주 많이 있다'를 5점, '많이 하는 편이다' 또는 '많이 있는 편이다'를 4점, '조금 한다' 또는 '조금 있다'를 3점, '별로 많이 안 한다' 또는 '별로 많지 않다'를 2점, 그리고 '거의 안 한다' 또는 '거의 없다'를 1점으로 채택한다. 단, '형제에게 보살핌을 받음'과 '형제의 지배를 받음'에 관련된 세 문항(3, 11, 18)은 반대방향으로 점수화 된다. 어머니의 차별행동 편애가 '거의 언제나 나'에 주어지면 5점, '형제 보다는 나'는 4점, '둥이 같다'는 3점, '나 보다는 형제'는 2점, '거의 언제나 형제'이면 1점으로 채점되어 형제편애보다 자기편애가 높은 점수를 받도록 되어 있다.

SRQ의 4개 요인은 온정/친밀감, 갈등, 상대적 지위/권력, 그리고 경쟁의식이고 각 요인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은 다음과 같다.

① 온정/친밀감 요인 : 친사회성, 애정, 동반, 유사성, 친밀성

② 갈등요인 : 적대, 논쟁, 경쟁행위

③ 상대적 지위/권력 : 형제를 돌봄과 형제에게 보살핌을 받음, 형제를 지배함과 형제의 지배를 받음

④ 경쟁의식 : 부모의 애정에 대한 경쟁의식으로서, 부모가 누구에게 더 사랑과 관심을 보인다고 지각하는가 하는 편애지각

본 연구에서 나타난 형제관계 측정도구의 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는 <표 Ⅲ-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Ⅲ-2> 형제관계 내적합치도

하위척도	문항 수	문항구성	Cronbach′ α
온정/친밀감	8	4, 5, 7, 8, 12, 14, 19, 20	.8992
갈등	5	6, 13, 16, 21, 22	.8917
상대적 지위/권력	6	2, 3*, 10, 11*, 17, 18*	.6833
경쟁의식	3	1, 9, 5	.8445

* 채점부호가 반대인 문항.

3) 정서 · 행동문제 측정도구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 (Korean-Youth Self Report : K-YSR)는 11~18세 청소년이 자신의 적응과 정서 및 행동문제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Achenbach(1991b)가 개발한 것을 오경자 등(1998)이 표준화 하였다. K-YSR은 사회능력 척도와 문제행동증후군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제행동증후군 척도는 모두 119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평가는 0점(전혀 없다), 1점(가끔 보인다), 2점(매우 심하다)등의 3점 척도로 평가하게 되어 있다. 총 문제행동증후군 점수는 바람직한 긍정문항 16개와 문항 2, 4번을 제외한 101개 문항의 합으로 구성되므로 그 범위는 0점에서 202점까지이다. 문제행동증후군 척도에는 위축 척도, 신체증상 척도, 불안/우울 척도, 사회적 문제 척도, 사고의 문제 척도, 주의집중 문제 척도, 비행 척도, 공격성 척도와 내재화 문제 척도, 외현화 문제 척도 등 모두 10개의 문제행동증후군 척도와 총 문제 행동 척도 등 모두 11개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능력 척도를 제외하고 문제행동증후군 척도와 총 문제행동 척도만을 비교 연구하였으며 모든 하위 척도의 원점수는 규준자료(오경자 외, 1998)에 제시된 대로 T점수를 사용하였다. 내재화 척도, 외현화 척도, 그리고 총 문제행동 척도는 표준점수(T점수)가 63이상일 때 임상범위로 판단되고, 8개의 하위 척도는 각각의 표준점수(T점수)가 70이상일 때 임상범위로 판단된다. K-YSR 신뢰도는 국내 표준화 연구(오경자 외, 1998)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 α를 산출한 결과 .65~.8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K-YSR의 신뢰도는 각 문제행동증후군 척도에 대해서 Cronbach 내적합치도 계수(α)를 산출한 결과 .64~.81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Cronbach 내적합치도 계수(α)는 0.6이상이면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인정된다(양옥승, 1997). 본 연구의 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8개 증후군별 Cronbach 내적합치도 계수(α)는 <표 Ⅲ-3>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Ⅲ-3> 8개 증후군별 내적합치도

증후군	위축	신체 증상	우울 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 집중 문제	비행	공격성
α계수	.653	.763	.853	.628	.651	.647	.739	.819

본 연구는 사회능력척도를 제외한 문제행동증후군 영역만으로 측정하였으며 배부·회수가 끝난 평가척도는 중앙적성검사연구소 사이버 센터에 접속하여 연구자가 직접 각 항목의 원점수를 입력한 후, 각각 학생의 표준점수와 프로파일을 출력하였으며, 그 결과로 얻은 표준점수(T점수)를 사용하여 통계처리를 하였다.

4. 연구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07년 4월 2일부터 4월 27일까지 약 1개월 동안 실시되었다. 이 기간 동안 연구자가 표집 한 8개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선정된 학급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연구의 취지와 K-YSR의 개념 및 평가방법을 설명하였다. 담임교사는 학생들에게 40분 정도의 설문지 작성시간을 부여한 후 작성하게 하여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지는 배부 후 1~2주일 후에 연구자에게 회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학급 학생들 전원으로부터 911부의 질문지가 회수되었고 그 가운데 응답이 불성실하거나(94부) 형제자매가 없는 외동아가 응답한(39부) 133부의 질문지를 제외한 결과 최종적으로 778부가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질문지 회수 상황은 <표 Ⅲ-4>에 제시되어 있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연구목적으로 설정한 청소년의 형제관계와 정서·행동문제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SPSS 10.1k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연구문제별로 다음과 같이 실시되었다.

첫째, 청소년의 형제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하위영역의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K-YSR의 총문제행동척도 T점수의 평균, 표준편차와 내재화척도와 외현화척도 T점수의 평균, 표준편차, 8개의 증후군별 T점수의 평균, 표준편차, 순위를 산출하였다. 또한, 총문제행동척도, 내재화척도, 외현화척도 T점수가 63T이상으로 임상범위에 속하는 학생의 비율과 8개 증후군별 T점수가 70T이상으로 임상범위에 속하는 학생의 비율 및 순위를 산출하였다. 또한 정서·행동문제의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내재화문제만 있는 학생, 외현화문제만 있는 학생,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가 모두 있는 학생, 정상범위에 속하는 학생의 네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의 빈도 및 비율을 산출하였다.

셋째, 청소년의 형제관계와 정서·행동문제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형제관계의 4개 하위영역 점수와 K-YSR의 11개 하위척도 T점수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정서·행동문제에 따른 형제관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형제관계 하위영역별로 t-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Ⅲ-4> 질문지 회수상황

학교	학년	정원	불성실한응답(*n*)	무형제(*n*)	분석된질문지(*n*)
A	1	40	2	5	33
	2	36	7	0	29
	3	38	6	2	30
B	1	39	5	0	34
	2	38	7	0	31
	3	42	1	1	40
C	1	38	2	0	36
	2	37	6	0	31
	3	40	1	1	38
D	1	27	3	3	21
	2	35	6	2	27
	3	38	7	0	31
E	1	37	4	1	32
	2	36	1	2	33
	3	35	4	1	30
F	1	42	1	2	39
	2	40	5	3	32
	3	40	5	1	34
G	1	39	2	1	36
	2	40	5	0	35
	3	39	2	3	34
H	1	40	2	4	34
	2	35	7	3	25
	3	40	3	4	33
합계	·	911	94	39	778

Ⅳ. 연구결과

본 연구는 청소년의 형제관계와 정서·행동문제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연구문제에 따라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형제관계

연구대상자들의 형제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SRQ(Furman & Buhrmester, 1985)를 통해 측정한 결과는 <표 Ⅳ-1>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Ⅳ-1>에 보이듯이 각 하위영역별 온정/친밀감, 갈등, 상대적 지위/권력, 경쟁의식을 1~5점을 평정하도록 하였는데 갈등(*M*=3.13)에 있어서는 다른 영역에 비해 특히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는 상대적 지위/권력(*M*=2.98), 경쟁의식(*M*=2.97), 온정/친밀감(*M*=2.91) 순으로 형제관계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표 Ⅳ-1> 형제관계의 평균, 표준편차 점수(*N*=778)

하위 영역	*M*	*SD*
온정/친밀감	2.91	0.91
갈등	3.13	0.99
상대적 지위/권력	2.98	0.76
경쟁의식	2.97	0.66

2. 정서 · 행동문제

연구대상자들의 정서 · 행동문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K-YSR(오경자 외, 1998)을 통해 측정한 결과를 정도와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서 · 행동문제의 정도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정서 · 행동문제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총문제행동척도의 평균, 표준편차, 내재화척도, 외현화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8개의 하위 증후군별 평균, 표준편차 및 순위를 산출한 결과는 <표 Ⅳ-2>에 제시하였으며, 총문제행동척도와 내재화척도, 외현화척도 T점수가 63T이상으로 임상범위에 속하는 학생의 비율과 8개 증후군별 T점수가 70T이상으로 임상범위에 속하는 학생의 비율은 <표 Ⅳ-3>에 제시하였다.

<표 Ⅳ-2> 총 문제행동, 내재화, 외현화 척도, 8개 하위증후군별 점수(N=778)

하위 척도		M	SD	순위
총문제행동 T점수		54.59	9.756	·
내재화 T점수		52.78	10.168	·
외현화 T점수		55.47	9.786	·
8개 증후군	위축 T점수	55.12	7.233	8
	신체증상 T점수	55.25	7.520	7
	우울/불안 T점수	55.40	7.706	6
	사회적 미성숙 T점수	55.47	7.078	5
	사고 T점수	55.67	7.351	4
	주의집중 T점수	56.02	7.636	3
	비행 T점수	56.03	7.076	2
	공격성 T점수	57.19	7.711	1

<표 Ⅳ-3> 행동문제 정도의 빈도분석 결과(N=778)

하위 척도		구분	n	%	비율순위
총 문제 행동 척도		정상(T<63)	627	80.6	·
		임상(T≥63)	151	19.4	·
		계	778	100.0	·
내재화 척도		정상(T<63)	637	81.9	·
		임상(T≥63)	141	18.1	·
		계	778	100.0	·
외현화 척도		정상(T<63)	619	79.6	·
		임상(T≥63)	159	20.4	·
		계	778	100.0	·
8개 하위 증후군	위축	정상(T<70)	732	94.1	·
		임상(T≥70)	46	5.9	5
		계	778	100.0	·
	신체증상	정상(T<70)	728	93.6	·
		임상(T≥70)	50	6.4	4
		계	778	100.0	·
	우울/불안	정상(T<70)	727	93.4	·
		임상(T≥70)	51	6.6	3
		계	778	100.0	·
	사회적 미성숙	정상(T<70)	749	96.3	·
		임상(T≥70)	29	3.7	7
		계	778	100.0	·
	사고	정상(T<70)	725	93.2	·
		임상(T≥70)	53	6.8	2
		계	778	100.0	·
	주의집중	정상(T<70)	732	94.1	·
		임상(T≥70)	46	5.9	5
		계	778	100.0	·
	비행	정상(T<70)	750	96.4	·
		임상(T≥70)	28	3.6	8
		계	778	100.0	·
	공격성	정상(T<70)	715	91.9	·
		임상(T≥70)	63	8.1	1
		계	778	100.0	·

총문제행동척도 T점수의 평균은 <표 Ⅳ-2>에 나타난 바와 같이 54.59로 나타났고, 내재화척도 T점수 평균은 52.78, 외현화척도 T점수 평균은 55.47, 8개 하위 증후군별 T점수는 공격성 57.19, 비행 56.03, 주의집중 56.02, 사고 55.67, 사회적 미성숙 55.47, 우울/불안 55.40, 신체증상 55.25, 위축 55.12의 순으로 나타났다.

총문제행동척도의 임상범위에 속하는 비율은 <표 Ⅳ-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 778명 중 151명(19.4%)이 임상범위로 나타났고 내재화척도의 임상범위에 속하는 비율은 총 778명 중 141명(18.1%), 외현화척도의 임상범위에 속하는 비율은 총 779명 중 159명(20.4%)으로 나타났다. 8개 하위증후군별로 임상범위에 속하는 학생의 비율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격성 63명(8.1%), 사고 53명(6.8%), 우울/불안 51명(6.6%), 신체증상 50명(6.4%), 위축 46명(5.9%), 주의집중 46명(5.9%), 사회적 미성숙 29명(3.7%), 비행 28명(3.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2>의 8개 하위 증후군별 T점수의 평균 순위와 <표 Ⅳ-3>의 8개 하위 증후군별 임상수준의 비율 순위를 비교해보면 T점수의 평균은 공격성, 비행, 주의집중, 사고, 사회적 미성숙, 우울/불안, 신체증상, 위축 순으로 나타났고 임상수준의 비율 순위는 공격성, 사고, 우울/불안, 신체증상, 위축, 주의집중, 사회적 미성숙, 비행 순으로 나타나 공격성만 제외하고 모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표 Ⅳ-2>에서는 총문제행동척도의 T점수, 내재화척도, 외현화척도의 T점수 및 8개의 하위증후군별 T점수의 평균 모두에서 임상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표 Ⅳ-3>에서는 총문제행동척도에서 전체의 19.4%, 내재화척도에서 전체의 18.1%, 외현화척도에서 전체의 20.4%, 공격성에서 전체의 8.1%, 사고에서 전체의 6.8%, 우울/불안에서 전체의 6.6%, 신체증상에서 전체의 6.4%, 위축에서 전체의 5.9%, 주의집중에서 전체의 5.9%, 사회적 미성숙에서 전체의 3.7%, 비행에서 전체의 3.6%가 임상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서 · 행동문제의 유형

중학생의 정서 · 행동문제의 유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K-YSR의 내재화 문제만 있는 학생, 외현화 문제만 있는 학생,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가 모두 있는 학생, 내재화, 외현화 문제가 없는 학생의 네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의 빈도 및 비율을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Ⅳ-4>에 제시하였다.

<표 Ⅳ-4> 행동문제의 유형 빈도분석 결과(N=778)

	범 위	빈 도	비 율(%)
정서 · 행동 문제 유형	내재화 & 외현화 문제 (63T 미만)	558	71.7
	내재화 문제 (63T 이상)	61	7.8
	외현화 문제 (63T 이상)	79	10.2
	내재화 & 외현화 문제 (63T 이상)	80	10.3
계		778	100.0

중학생들의 행동문제 유형은 <표 Ⅳ-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내재화, 외현화 문제를 모두 보이지 않는 학생들이 558명(71.7%)으로 가장 많았고,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를 모두 보이는 학생들이 80명(10.3%), 외현화 문제를 보이는 학생들이 79명(10.2%), 내재화 문제만을 보이는 학생이 61명(7.8%)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의 28.3%가 임상범위에 속하는 학생으로 나타났다.

3. 형제관계와 정서 · 행동문제의 상관분석

중학생들의 형제관계와 정서 · 행동문제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총문제행동척도, 내재화, 외현화 척도 T점수 및 8개 하위 증후군별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 주의집중, 비행의 T점수와 형제관계 4개

하위영역인 온정친밀감, 갈등, 상대적 지위/권력, 경쟁의식 점수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5>에 제시되었다.

<표 Ⅳ-5>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정서 · 행동문제	형제관계			
	온정/친밀감	갈등	상대적 지위/권력	경쟁의식
총문제행동	-0.053	0.235***	-0.107**	-0.126***
내재화	-0.088*	0.188***	-0.103**	-0.137***
외현화	-0.020	0.253***	-0.088*	-0.093**
위축	-0.105**	0.101**	-0.048	-0.101**
신체증상	-0.006	0.086*	-0.082*	-0.086*
우울/불안	-0.095**	0.200***	-0.068	-0.154***
사회적 미성숙	0.018	0.077*	-0.064	-0.090*
사고	0.038	0.145***	-0.093**	-0.064
주의집중	-0.043	0.175***	-0.028	-0.084*
비행	-0.042	0.152***	-0.043	-0.092*
공격성	0.004	0.220***	-0.079*	-0.109**

*p < .05; **p < .01; ***p < .001.

1) 온정/친밀감과 정서·행동문제와의 상관분석

<표 Ⅳ-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온정/친밀감과 정서·행동문제의 내재화(r=-0.088, p < .05), 8개 하위증후군의 위축(r=-0.105, p < .01), 우울/불안(r=-0.095, p < .01)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 총문제행동(r=-0.053), 외현화(r=-0.020), 신체증상(r=-0.006), 사회적미성숙(r=0.018), 사고(r=0.038), 주의집중(r=-0.043), 비행(r=-0.042), 공격성(r=0.004)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즉, 형제와 온정적이고 친밀감 있는 관계를 유지할수록 내재화, 위축, 우울/불안 문제를 덜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

2) 갈등과 정서·행동문제와의 상관분석

<표 Ⅳ-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갈등과 정서·행동문제의 총문제행동(r=0.235, p < .001), 내재화(r=0.188, p < .001), 외현화(r=0.253, p < .001), 8개 하위증후군의 위축(r=0.101, p < .01), 신체증상(r=0.086, p < .05), 우울/불안(r=0.200, p < .001), 사회적미성숙(r=0.077, p < .05), 사고(r=0.145, p < .001), 주의집중(r=0.175, p < .001), 비행(r=0.152, p < .001), 공격성(r=0.220, p < .001) 모두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갈등이 있는 형제관계가 유지될수록 정서・행동문제의 총문제행동,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8개 하위증후군 모든 영역에 문제를 더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

3) 상대적 지위/권력과 정서·행동문제와의 상관분석

<표 Ⅳ-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대적 지위/권력과 정서·행동문제의 총문제행동(r=-0.107, p < .01), 내재화(r=-0.103, p < .01), 외현화(r=-0.088, p < .05), 8개 하위증후군의 신체증상(r=-0.082, p < .05), 사고(r=-0.093, p < .01), 공격성(r=-0.079, p < .05)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 8개 하위증후군의 위축(r=-0.048), 우울/불안(r=-0.068), 사회적미성숙(r=-0.064), 주의집중(r=-0.028), 비행(r=-0.043)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즉, 상

대적 지위/권력의 부정적인 형제관계가 유지될수록 8개 하위증후군의 위축, 우울/불안, 사회적미성숙, 주의집중, 비행의 문제를 더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

4) 경쟁의식과 정서·행동문제와의 상관분석

<표 Ⅳ-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쟁의식과 정서·행동문제의 총문제행동(r=-0.126, p < .001), 내재화(r=-0.137, p < .001), 외현화(r=-0.093, p < .01), 8개 하위증후군의 사고(r=-0.064)를 제외한 위축(r=-0.101, p < .01), 신체증상(r=-0.086, p < .05), 우울/불안(r=-0.154, p < .001), 사회적미성숙(r=-0.090, p < .05), 주의집중(r=-0.084, p < .05), 비행(r=-0.092, p < .05), 공격성(r=-0.109, p < .01) 모두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부정적인 경쟁의식의 형제관계가 유지될수록 정서・행동문제의 총문제행동,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8개 하위증후군의 사고를 제외한 모든 영역의 문제를 더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

4. 정서・행동문제에 따른 형제관계의 차이분석

정서・행동문제에 따라 형제관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K-YSR 11개 하위척도의 두 집단(정상집단 및 임상집단)에 따른 형제관계를 하위영역별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서・행동문제에 따른 온정/친밀감의 차이분석

정서・행동문제의 11개 하위척도별로 정상집단과 임상집단에 따라 형제관계의 온정/친밀감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6>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Ⅳ-6>에서 알 수 있듯이 2개의 하위증후군(위축, 사고)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위축에 있어서는 정상

집단이 임상집단보다 온정/친밀감을 더 높게 나타냈으며 사고에 있어서는 임상집단이 정상집단보다 온정/친밀감을 더 높게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위축의 문제를 보이는 임상집단의 학생이 정상집단에 비하여 형제간에 서로 정을 나누는 친밀한 관계를 덜 유지하는 반면 사고의 문제를 보이는 임상집단의 학생이 정상집단에 비해 더 형제간에 서로를 위해 주며 돕고 의지하며 서로 간에 속마음과 비밀스러운 대화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정서 · 행동문제에 따른 갈등의 차이분석

정서 · 행동문제의 11개 하위척도별로 정상집단과 임상집단에 따라 형제관계의 갈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7>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Ⅳ-7>에서 알 수 있듯이 총문제행동,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3개의 하위증후군(우울/불안, 주의집중, 공격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총문제행동,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3개의 하위증후군(우울/불안, 주의집중, 공격성)에서 임상집단이 정상집단보다 갈등을 더 높게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총문제행동,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우울/불안, 주의집중, 공격성을 보이는 임상집단의 학생이 정상집단에 비하여 서로 불화하고 다투는 행위와 형제끼리 속상하게 하고 비겁하며 심술궂은 행동 등 적대감을 나타내는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정서 · 행동문제에 따른 상대적 지위/권력의 차이분석

정서 · 행동문제의 11개 하위척도별로 정상집단과 임상집단에 따라 형제관계의 상대적 지위/권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8>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Ⅳ-8>에서 알 수 있듯이 내재화문제, 하위증후군의 신체증상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내재화에 있어서는 정상집단이 임상집단보다 상대적 지위/권력을 더 높게 나타냈으며 신체증상에 있어서도 정상집단이 임상집단보다 상대적 지위/권력을 더

높게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내재화 문제와 신체증상에 있어서 정상 집단이 임상집단에 비해 형제간에 서로를 가르쳐주고, 형제를 돌보며, 보살핌을 받는 형제관계가 더 유지되고 있으며 어떤 일을 시키고 서로에게 명령하는 행동과 형제를 지배하고 형제의 지배를 받는 부정적인 형제관계의 경향이 임상집단에 비해 적은 것으로 해석된다.

4) 정서·행동문제에 따른 경쟁의식의 차이분석

정서·행동문제의 11개 하위척도별로 정상집단과 임상집단에 따라 형제관계의 경쟁의식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9>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Ⅳ-9>에서 알 수 있듯이 총문제행동, 하위증후군의 우울/불안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총문제행동에 있어서는 정상집단이 임상집단보다 경쟁의식을 더 높게 나타냈으며 우울/불안에 있어서도 정상집단이 임상집단보다 경쟁의식을 더 높게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총문제행동, 우울/불안에 있어서 정상집단의 학생이 임상집단에 비하여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사소통상의 문제나 형제들 가운데 자신을 더욱 인정하고 좋아한다고 생각함으로서 긍정적인 형제관계를 더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Ⅳ-6> 정서·행동문제에 따른 온정/친밀감의 차이분석 결과

K-YSR			온정/친밀감				
하위 척도		구분	*n*	*M*	*SD*	*t*	*p*
총 문제 행동		정상	627	2.93	0.916	1.089	0.277
		임상	151	2.84	0.868		
내재화		정상	637	2.93	0.910	1.194	0.233
		임상	141	2.83	0.891		
외현화		정상	619	2.91	0.894	-0.445	0.656
		임상	159	2.94	0.960		
8개 증후군	위축	정상	732	2.93	0.904	2.234*	0.026
		임상	46	2.63	0.925		
	신체 증상	정상	728	2.90	0.910	-1.540	0.124
		임상	50	3.11	0.846		
	우울 불안	정상	727	2.91	0.906	-0.041	0.967
		임상	51	2.92	0.929		
	사회적 미성숙	정상	749	2.91	0.910	-0.937	0.349
		임상	29	3.07	0.826		
	사고	정상	725	2.89	0.911	-2.448*	0.015
		임상	53	3.21	0.807		
	주의 집중	정상	732	2.93	0.907	1.517	0.130
		임상	46	2.72	0.891		
	비행	정상	750	2.92	0.907	1.054	0.292
		임상	28	2.74	0.921		
	공격성	정상	715	2.93	0.906	1.190	0.235
		임상	63	2.78	0.922		

*$p < .05$.

<표 Ⅳ-7> 정서·행동문제에 따른 갈등의 차이분석 결과

K-YSR			갈등				
하위 척도		구분	*n*	*M*	*SD*	*t*	*p*
총 문제 행동		정상	627	3.04	0.958	-5.012^{***}	0.000
		임상	151	3.48	1.037		
내재화		정상	637	3.07	0.969	-3.577^{***}	0.000
		임상	141	3.39	1.039		
외현화		정상	619	3.05	0.958	-4.332^{***}	0.000
		임상	159	3.43	1.053		
8개 증후군	위축	정상	732	3.13	0.980	-0.088	0.930
		임상	46	3.14	1.137		
	신체 증상	정상	728	3.13	0.982	0.316	0.752
		임상	50	3.08	1.099		
	우울 불안	정상	727	3.11	0.985	-2.163^{*}	0.031
		임상	51	3.42	1.005		
	사회적 미성숙	정상	749	3.12	0.990	-1.019	0.309
		임상	29	3.31	0.972		
	사고	정상	725	3.11	0.981	-1.914	0.056
		임상	53	3.38	1.077		
	주의 집중	정상	732	3.09	0.978	-3.651^{***}	0.000
		임상	46	3.64	1.037		
	비행	정상	750	3.11	0.989	-1.803	0.072
		임상	28	3.46	0.955		
	공격성	정상	715	3.09	0.966	-3.387^{**}	0.001
		임상	63	3.58	1.130		

$^{*}p < .05$; $^{**}p < .01$; $^{***}p < .001$.

<표 Ⅳ-8> 정서·행동문제에 따른 상대적 지위/권력의 차이분석 결과

K-YSR			상대적 지위/권력				
하위 척도		구분	*n*	*M*	*SD*	*t*	*p*
총 문제 행동		정상	627	3.01	0.743	1.682	0.094
		임상	151	2.88	0.820		
내재화		정상	637	3.02	0.736	2.519*	0.013
		임상	141	2.83	0.841		
외현화		정상	619	3.00	0.739	1.363	0.174
		임상	159	2.90	0.832		
8개 증후군	위축	정상	732	2.99	0.759	0.378	0.706
		임상	46	2.94	0.779		
	신체 증상	정상	728	3.00	0.757	2.152*	0.032
		임상	50	2.76	0.763		
	우울 불안	정상	727	2.98	0.760	0.153	0.878
		임상	51	2.97	0.765		
	사회적 미성숙	정상	749	2.99	0.759	1.249	0.212
		임상	29	2.81	0.779		
	사고	정상	725	2.99	0.754	1.144	0.253
		임상	53	2.87	0.826		
	주의 집중	정상	732	2.98	0.755	-0.156	0.876
		임상	46	3.00	0.837		
	비행	정상	750	2.98	0.759	-0.584	0.559
		임상	28	3.07	0.772		
	공격성	정상	715	2.99	0.748	1.113	0.266
		임상	63	2.88	0.876		

*$p < .05$.

<표 Ⅳ-9> 정서·행동문제에 따른 경쟁의식의 차이분석 결과

K-YSR			경쟁의식				
하위 척도		구분	*n*	*M*	*SD*	*t*	*p*
총 문제 행동		정상	627	3.00	0.613	2.168*	0.031
		임상	151	2.85	0.835		
내재화		정상	637	3.00	0.625	1.746	0.083
		임상	141	2.87	0.811		
외현화		정상	619	3.00	0.618	1.620	0.107
		임상	159	2.88	0.814		
8개 증후군	위축	정상	732	2.99	0.653	1.828	0.074
		임상	46	2.77	0.795		
	신체 증상	정상	728	2.98	0.654	0.593	0.553
		임상	50	2.92	0.804		
	우울 불안	정상	727	3.00	0.633	3.045**	0.004
		임상	51	2.59	0.936		
	사회적 미성숙	정상	749	2.98	0.663	0.449	0.654
		임상	29	2.92	0.705		
	사고	정상	725	2.98	0.656	0.346	0.730
		임상	53	2.94	0.767		
	주의 집중	정상	732	2.98	0.662	1.711	0.087
		임상	46	2.81	0.676		
	비행	정상	750	2.98	0.666	1.529	0.127
		임상	28	2.79	0.582		
	공격성	정상	715	2.99	0.641	1.799	0.077
		임상	63	2.79	0.870		

*$p < .05$; **$p < .01$.

Ⅴ. 논의

본 연구는 중학생들의 형제관계의 특성과 정서·행동문제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G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형제관계, 정서·행동문제의 정도와 유형, 상관관계, t-검증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다음에서는 본 논문의 결과를 관련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연구 문제별로 논의하고자 한다.

1. 형제관계

연구대상자들의 형제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SRQ(Furman & Buhrmester, 1985)를 통해 각 하위영역별 온정/친밀감, 갈등, 상대적 지위/권력, 경쟁의식을 5점을 척도로 산출하였을 때 갈등에 있어서 다른 영역에 비해 특히 높은 평균점수가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상대적 지위/권력, 경쟁의식, 온정/친밀감 순으로 형제관계의 형태가 나타났다(<표 Ⅳ-1> 참조). 이는 정인선(2006)의 연구에서는 가장 높은 평균점수로 상대적 지위/권력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경쟁, 온정/친밀, 갈등으로 나타나 온정/친밀감에 있어서 형제간에 온정적이고 친밀한 긍정적인 형제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형제관계에 있어서 긍정적 측면인 상대적 지위/권력, 경쟁의식, 온정/친밀감에 비해 부정적 측면인 갈등의 평균점수가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정인선(2006)의 연구결과에서 갈등관계가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보인 것과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상반된 결과는 연구대상의 연령에 따른 차이일 수도 있는데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와는 달리 정인선(2006)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형제간의 갈등문제가 더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정서행동문제

1) 정서・행동문제의 정도

본 연구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총 778명의 학생 중 19.4%에 속하는 151명이 총문제행동척도에서 임상범위로 나타났다(<표 Ⅳ-3> 참조). 총 문제행동척도의 8개 하위증후군별로 살펴보면 임상범위에 속하는 학생들의 범위가 공격성 8.1%, 사고 6.8%, 우울/불안 6.6%, 신체증상 6.4% 위축 5.9%, 주의집중 5.9%, 사회적미성숙 3.7% 비행은 3.6%으로 각각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연구조사결과인 일반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정도와 비교해 보면 김승국(1986)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12,791명 중 2.4%, 조선덕(1990)의 연구에서는 총 9,787명 중 1.59%, 민성길 등(1997)의 연구에서는 3,263명 중 8.31%로 나타나 해가 갈수록 정서행동문제를 보이는 아동의 비율이 높아져 감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증가추세를 입증해주는 조사연구로서 서울시 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진흥원이 펴낸 '학교보건연보'에 따르면 2005년 9~12월 서울시내 초・중・고 19개교 만 6~17세 소아청소년과 그 부모 총 26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 청소년 정신장애 유병률 조사' 결과 응답자 중 정신장애를 행동장애, 불안장애, 기분장애, 정신분열증, 물질남용 및 의존, 기타장애등 범주별로 구분한 조사에서 응답자 중 604명(22.60%)은 1가지 장애만을 호소했고, 장애가 2개 223명(8.35%), 3개 88(3,29%), 4개 21명(0.79%), 5개 12명(0.45%), 6개 8명(0.30%) 등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2007. 4. 15). 또한 최근 보건복지부(2006)에서 부산과 강원, 충남,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2개 시, 도에 소재한 94개 초등학교 학생 7천 700명을 대상으로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실시한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 불안이나 우울, 공포, 강박증 등 정서문제를 갖고 있는 학생이 전체의 20.1%나 됐고, 비행 청소년의 전조가 되는 반항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 행동문제 학생도 11.6%에 달해 정서・행동문제 모두에 해당하는 학생은 25.8%였다. 특히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는 정신과 신체적 장애를 겪고 있는 학생이 33.1%에 달했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정서・행동문제를 더 갖고 있었

다. 다만, 연구논문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나 초·중·고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본 연구결과와 비교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다.

중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총문제행동척도 점수 T점수, 내재화 T점수, 외현화 T점수 및 8개 하위증후군별 T점수의 평균은 모두 임상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행동문제 정도의 빈도분석 결과 총문제행동척도는 19.4%, 내재화척도는 18.1%, 외현화척도는 20.4%, 공격성은 8.1%, 사고는 6.8%, 우울/불안은 6.6%, 신체증상은 6.4%, 위축과 주의집중은 5.9%, 사회적 미성숙은 3.7%, 비행은 3.6%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결과를 해석할 때 평균만을 보게 되면 임상범위에 해당하는 학생이 없기 때문에 빈도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8개의 하위 증후군별 T점수의 평균 순위와 8개 하위 증후군별 임상 수준별 비율 순위를 비교해 보면, T점수의 평균은 공격성, 비행, 주의집중, 사고, 사회적 미성숙, 우울/불안, 신체증상, 위축 순으로 나타난 반면 임상수준의 비율 순위는 공격성, 사고, 우울/불안, 신체증상, 위축, 주의집중, 사회적 미성숙, 비행 순으로 나타나 공격성에서 공통적인 문제행동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아동 청소년의 공격성, 비행, 우울/불안 등의 정서·행동장애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조사결과(2006)와 '서울시청소년정신장애유병률조사'(서울대학교병원·서울시소아청소년광역정신보건센터, 2005)등 여러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연구결과 또한 본 연구결과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조사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 정서·행동문제의 유형

본 연구에서 중학생 총 778명 중 외현화문제만을 보이는 학생은 10.2%로 79명, 내재화문제만을 보이는 학생은 7.8%로 61명이 임상범위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현화문제와 내재화문제를 모두 보이는 학생들이 10.3%로 80명이 임상범위로 나타났다(<표 Ⅳ-4> 참조). 이러한 결과가 <표 Ⅳ-3> 행동문제 정도

의 빈도분석 결과인 외현화척도 비율 20.4%와 내재화척도 임상비율 18.1%로 수치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표 Ⅳ-4>은 내재화문제만을, 그리고 외현화문제만을 보이는 학생으로 구분을 하였으나 <표 Ⅳ-3>는 내재화문제를 가진 학생 중에 외현화문제를 가진 학생이 포함될 수 있으며, 외현화문제를 가진 학생 중에 내면화문제를 가진 학생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 보건복지부의 조사결과(2006) 일반학생의 경우 내재화문제를 보이는 학생이 20%, 외현화문제를 보이는 학생은 11.6%,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를 모두 보이는 학생이 25.8%로 내재화문제가 외현화문제보다 더 많이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부의 조사결과(2006)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심리적, 육체적 변화에 따른 행동변화에 대한 차이로 볼 것인가의 의문과 지역적인 특성, 또는 가정환경, 학교구조, 시대변화, 기후 등의 여러 가지 변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내재화척도 T점수와 외현화척도 T점수 각각의 평균이 임상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행동문제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28.3%가 임상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3>, <표 Ⅳ-4> 참조). 순위는 내재화, 외현화척도 T점수 모두에서 임상범위에 속하는 학생들이 10.3%, 외현화척도 T점수에서 임상범위에 속하는 학생들이 10.2%, 내면화척도 T점수에서 임상범위에 속하는 학생 7.8%로 나타났으며 이는 평균만으로 정서·행동문제의 유형을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형제관계와 정서·행동문제의 상관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K-YSR)을 통해 조사한 총문제행동, 내재화, 외현화, 8개 하위증후군과 형제관계척도(SRQ)는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는데 형제관계척도별로 정서·행동문제와의 상관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온정/친밀감과 정서·행동문제와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부적상관관계를 보임으로서 형제와 온정적이고 친밀감 있는 관계를 유지할수록 내재화, 위축, 우울/불안 문제를 덜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갈등과 정서·행동문제와의 상관관계는 갈등과 총문제행동, 내재화, 외현화, 8개 하위 증후군 모두에서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임으로서 갈등이 있는 형제관계가 유지될수록 정서·행동문제의 총문제행동, 내재화, 외현화, 8개 하위증후군 모든 영역에 문제를 더 나타냈으며 이는 서로 불화하고 다투며 형제끼리 속상하게 하고 비겁하며 심술궂은 행동을 보이는 형제관계는 정서·행동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형제자매간의 부정적 상호작용은 모델링을 통해 더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행동을 많이 하게 되며(Patterson, 1982), 형제자매간의 갈등이 많을수록 또래에 대한 공격성이 높다는 연구결과(Stormshak et al., 1996)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형제관계가 청소년 문제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예측할 수 있게 한다. 반면 형제의 갈등이 높을수록 비행문제가 높게 발생하게 된다는 김선미(1995)의 연구나 그 외 청소년의 공격성의 증가로 인한 각종 비행문제가 나타나는 현재 학교의 문제점을 생각해본다면 의외의 결과가 나타났는데 비행에 있어서 임상정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형제간의 갈등에 있어서도 비행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설문조사자가 학교의 교사인 부분을 감안하여 비행에 대한 처벌의 두려움으로 방어기제가 작용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조사연구의 방법적인 문제도 생각해보아야 할 부분이다.

셋째, 상대적 지위/권력과 정서·행동문제와의 상관관계는 상대적 지위/권력과 총 문제 행동, 내재화, 외현화와 8개 하위 증후군의 신체증상, 사고, 공격성에서 유의미한 부적상관관계를 보임으로서 상대적 지위/권력의 부정적인 형제관계가 유지될수록 8개 하위증후군의 위축, 우울/불안, 사회적미성숙, 주의집중, 비행의 문제를 나타내었다. 이는 형제간에 서로를 가르쳐주고 서로에 대해 명령하며 형제를 돌보고 보살핌을 받으며 형제를 지배하고 형제의 지배를 받는 관계 중에 부정적인 관계는 정서·행동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경쟁의식과 정서·행동문제와의 상관관계는 경쟁의식과 총 문제행동, 내재화, 외현화, 8개 하위 증후군 가운데 사고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 유의미한 부적상관관계를 보임으로서 부정적인 경쟁의식의 형제관계가 유지될수록 정서·행동문제의 총문제행동, 내재화, 외현화, 8개 하위증후군의 사고를 제외한 모든 영역의 문제를 나타내었다. 이는 부모가 아동자신과 형제 중 누구에게 더 사랑과 관심을 보인다고 지각하는가 하는 면에서 부정적인 편애지각 정서·행동의 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 모두 형제관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정적인 형제관계와 정서·행동문제의 외현화문제와의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고한 관련선행연구(예: 김선미, 1995; 1998; 김민정, 2001; 정인선, 2006)와 일관성을 보였다. 그러나 관련선행연구는 주로 정서·행동문제의 외현화문제에 국한하여 형제관계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반면 본 연구는 외현화문제뿐만 아니라 내재화문제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내재화문제 또한 형제관계와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4. 정서·행동문제에 따른 형제관계의 차이

정서·행동문제의 정상집단과 임상집단이 형제관계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t-검증 결과에 있어서는 온정/친밀감, 상대적 지위/권력, 경쟁의식은 모두 정상집단이 높게 나왔으며 갈등은 임상집단이 높게 나왔다. 유의한 연구결과가 나온 변인을 중심으로 형제관계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온정/친밀한 형제관계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정상집단과 임상집단의 차이는 위축의 문제를 보이는 임상집단의 학생이 정상집단에 비하여 형제간에 서로 정을 나누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온정, 친밀감은 형제가 서로 애정을 가지고 얼마나 서로에게 관심을 보이며 서로 사랑하는가를 나타내 주는데 스스로에 대해서 위축을 느끼는 형제끼리는 서로 함께 지내는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여겨지며 이러한 형제관계

로 인해 친 사회적인 행동이나 애정을 갖고 다른 사람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심리적인 위축증상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반면 사고의 문제를 보이는 임상집단의 학생이 정상집단에 비해 형제간의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고력이 높은 형제간은 서로에 대한 규범적이고 도덕적인 판단력의 요구와 자기 정체감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형제간의 관계가 온정적이며 친밀한관계로 유지되지 못하는 것이라 사료되며 이에 대한 결과는 의문점을 가지고 연구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둘째, 갈등이 있는 형제관계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정상집단과 임상집단의 차이는 총문제행동, 내재화, 외현화, 우울/불안, 주의집중, 공격성에 문제를 보이는 임상집단의 학생이 정상집단에 비하여 형제간에 서로 심한 갈등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형제자매간의 부정적 상호작용은 모델링을 통해 더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행동을 많이 하게 되며(Patterson, 1982), 형제자매관계가 적대적이고 공격적일 경우, 또래를 향한 공격적 행동이 더 강화되고(Hetherington, 1988), 형제자매간의 갈등이 많을수록 또래에 대한 공격성이 높다는 연구결과(Stormshak et al., 1996)와도 일치한다. 또한 김민정(2001)연구에서도 긍정적 및 부정적 형제자매관계는 아동의 공격성에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는 것과도 일치한다.

셋째, 상대적 지위/권력형태의 형제관계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정상집단과 임상집단의 차이는 내재화, 신체증상에 문제를 보이는 임상집단의 학생이 정상집단에 비하여 상대적 지위/권력 형제관계에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지위/ 권력을 구성하는 문항의 영역은 주로 형제의 보살핌을 받거나 돌보아 주며, 형제의 지배하거나 지배를 받음 등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하는데 형제의 보살핌을 받는 것은 형제가 할 줄 모르는 것을 얼마나 가르쳐주는 가이고 형제의 지배의 의미는 형제가 이래라 저래라 얼마나 명령하는가의 질문 등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내면적인 문제행동과 신체상의 문제를 보이는 임상집단의 학생은 서로에게 있어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경쟁의식의 형제관계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정상집단과 임상집단의

차이는 총 문제행동과 우울/불안에 문제를 보이는 임상집단의 학생이 정상집단에 비하여 경쟁의식의 형제관계에 문제행동을 보였다. 경쟁을 구성하는 문항의 영역은 나와 형제 중에서 어머니가 누구에게 더 잘 대해 주고 신경을 써 주며 좋아하는 형제는 누구인가를 묻는 질문으로 부모가 형제보다 자신을 덜 좋아하고 인정해주지 않을 때 우울/불안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고현자(2000)연구에서 가족관계를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우울을 경험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학생들의 형제관계의 특성과 정서·행동문제의 정도와 유형을 분석하고, 형제관계가 정서·행동문제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G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연구이다. 본 논문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 및 향후 관련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결론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문제별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형제관계의 연구결과에서 온정/친밀감 영역에 있어서 낮은 평균점수를 보여줌으로서 형제간에 온정적이고 친밀한 긍정적인 형제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형제 수가 적은 현대사회에서의 형제관계가 긍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 갈등 영역에서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내 보여주는 결과는 청소년들의 갈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형제관계가 심화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정서·행동문제의 연구 결과에서 778명의 학생 중 19.4%에 속하는 151명이 총 문제행동척도에서 임상범위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연구결과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아동 청소년의 공격성, 비행, 그리고 우울/불안 등의 정서·행동장애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공격성 다음으로 높은 임상 정도를 나타낸 사고 문제로 이는 타의에 의해 교육되어지는 주입교육이나 과도한 인터넷게임으로 인한 자기 판단력과 자기 정체성의 부재로 사고력이 저하되고 있음을 의미 있게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셋째, 형제관계와 정서·행동문제의 상관관계의 연구결과에서는 형제간의 갈등관계와 사회적 미성숙, 주의집중과 비행, 공격성의 정서·행동문제가 서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은 것으로 나타나 형제자매간의 부정적 상호작용 즉, 형제간의 갈등이 많을수록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형제간에 서로를 보살피고 돕고 의지하는 마음은 위축과 우울/불안을 줄여줄 수 있는 중요한 형제관계의 역할을 한다는 것과 부모의 지지와 인정을 받고 있다는 스스로의 인식은 문제행동의 출현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정서·행동문제에 따른 차이분석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위축의 문제를 보이는 임상집단의 학생이 정상집단에 비하여 형제간에 서로 정을 나누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사고의 문제를 보이는 형제간이 문제를 보이지 않는 형제간에 비해 형제간의 온정/친밀감이 높게 나타나 유의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판단력과 자기정체성의 부재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로 생각되며 사고력이 높은 형제일수록 도덕적인 면이나 규범적인 형제관계의 요구로 서로에 대한 온정적인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형제간에 갈등이 있을수록 정서·행동문제의 총 문제 행동, 내재화, 외현화, 우울/불안, 주의집중, 공격성에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면적인 문제행동과 신체상의 문제를 보이는 임상집단의 학생은 서로에 대한 보살핌과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와 형제 중에서 어머니가 누구에게 더 잘 대해 주고 신경을 써 주며 좋아하는 형제는 누구인가를 묻는 편애 지각에 대한 질문으로 부모가 형제보다 자신을 덜 좋아하고 인정해주지 않을 때 우울, 불안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형제관계가 부정적일수록 정서·행동문제의 전반적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다.

2. 제언

이러한 연구 결과는 대체적으로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형제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인 관계가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며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형제관계와 관련하여 정서·행동문

제의 연구가 아직 미흡한 상태에서 더욱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다음 몇 가지 점에서 관련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는 표집의 편의상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나 대상을 초등학교를 포함하여 다양한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형제수와 형제관계 간에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므로 좀 더 세부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성별과 연령차에 의해 나타나는 심리적, 육체적 변화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의 관련성과 지역적 환경, 가정환경, 학교구조, 시대변화, 기후 등의 여러 가지 변인의 특성과 정서·행동문제와의 관련성에 대한 후속연구들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사고의 문제를 보이는 임상집단의 학생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타의에 의해 교육되어지는 주입교육이나 과도한 인터넷게임으로 인한 자기 판단력과 자기 정체성의 부재로 사고력이 저하되고 있음을 의미 있게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이고 이에 대한 환경적인 문제와 학교교육의 방향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형제관계에 있어 갈등관계가 높게 나타났는데 어떠한 변인들이 형제관계 갈등원인으로 느끼고 있는지와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여 성별에 따라 느끼게 되는 세부적인 갈등요소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형제관계의 경쟁의식에 있어서 부모로부터의 지지와 인정은 문제행동을 줄여주었는데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부모의 지지방식이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도 더욱 필요할 것이다.

일곱째,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부정적인 형제관계와 외현적인 정서·행동문제의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외현화문제뿐만 아니라 내재화문제도 부정적인 형제관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형제관계와 관련하여 내재화문제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고현자 (2000).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 및 가족관계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김민정 (2001).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관계와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김선미 (1995). **가족관계와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김승국 (1986). 정서장애자의 실태와 교육대책. **정서·학습장애연구, 2**, 98-106.

김오남 (1994).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의 의사소통 유형과 가족 스트레스**.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김은화 (2007). **특수학교 정신지체학생의 정서·행동문제 특성 및 관련변인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노길미 (1998).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관계와 비행과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민성길·김진학·김한중·신의진·오경자·배주미·이혜련·김성은 (1997). 학교정신보건사업 모델개발: 1. 학교를 중심으로 한 초등학생의 정서 및 행동문제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36**, 812-825.

박미진·김광웅 (2002). 형제의 지위변인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친구 간 갈등 해결전략과의 관계. **아동연구, 15,** 79-105.

박영애 (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보건복지부 (2006).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프로그램**. 서울: 보건복지부.

서울대학병원·서울시 소아청소년 광역정신보건센터 (2005). 2005 역학 사업 보고서: **서울시 소아청소년 정신장애 유병률 조사**. 서울: 서울대학병원 소아정신과, 소아청소년광역정신보건센터, 학교보건진흥원.

송현정(1998).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가 장애아 형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연합뉴스 (2007. 4. 15). 초·중·고교생 4명 중 1명꼴로 정신장애.

양옥승 (1997). **유아교육 연구방법**. 서울: 양서원.

오경자, 이혜련(1990). 한국 아동 청소년의 문제행동 증후군 연구; 14-15세, 6-11세, 12-16세 남아 CBCL 자료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9**, 33-55.

오경자・이혜련・홍강의・하은혜 (1998). **K-YSR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유영주 (1989). **신가족 관계학**. 서울 : 교문사.

이소현・박은혜 (2006). 특수아동교육. 서울: 학지사.

이지선 (1994). **아동이 지각하는 형제자매 역할기대 및 수행과 형제자매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인혜 (1999).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과 정상아동의 형제관계 비교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정명숙・손영숙・정현희 공역 (2004). **아동기 행동장애(제5판)**. 서울: 시그마프레스.

정인선 (2006).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조선덕 (1990). 행동평정척도에 의한 정서장애 유형 실태 조사. **학생지도연구, 18**, 15-46.

추정선 (2005). **상담교육을 위한 이상심리학의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홍연림 (1999). **형제지위변인과 형제 관계가 아동의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Abramovitch, R., Corter, C., Pepler, D. J., & Stanhope, L. (1986). Sibling and peer interaction: A final follow-up and a comparison. *Child Development, 57*, 217-229.

Achenbach, T. M., & Edelbrock, C. S. (1978). The classification of child psychopathology: A review and analysis of empirical efforts. *Psychological Bulletin*, *85*, 1257-1301.

Achenbach, T. M. (1991a).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Achenbach, T. M. (1991b). *Manual for the Youth Self-Report and 1991 profiles.*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Achenbach, T. M. (1998). Diagnosis, assessment, taxonomy and case formulations. In T. H. Ollendick & M. Hersen (Eds.), *Handbook of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3rd ed., pp. 17-32). New York: Plenum Press.

Achenbach, T. M. (2000). Assessment of psychopathology. In A. J. Sameroff, M. Lewis, & S. M. Miller (Eds.), *Handbook of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2nd ed., pp. 38-49). New York: Kluwer Academic/Plenum Publishers.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Diagnostic statistic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text rev. ed.). Washington, D.C.: Author.

Adler, A. (1959). *The individual psychology.* New York: Harper & Row.

Azimitia, M., & Hesser, J. (1993). Why siblings are important agents of cognitive development: A comparison of sibling and peers. *Child Development, 64*, 430-444.

Bank, S., & Kahn, M. (1975). Sisterhood-brotherhood is powerful: Sibling subsystems and Family therapy. *Family Process, 14,* 311-317.

Berndt, T. J., & Bulleit, T. N. (1975). Effect of sibling relationships on preschooler′ behavior at home and at 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21*, 761-767.

Bossard, H. S., & Boll, E. S. (1960). *The sociology of child development.* New York: Harper & Row.

Brim, O. G. (1968). Family structure and sex role learning by children: A further analysis of Helen Koch′s data. In J. Hiess (Ed.), *Family Roles and Interaction: An anthology.* Chicago: Rand McNally.

Brody, G H., Stoneman, Z. (1990). Sibling relationships. In I. E. Sigel & G.

H. Brody (Eds.), *Methods of family research: Biographies of research project: Vol. 1. Normal families* (pp. 189-212). Hillsdale, NJ: Earlbaum.

Bryant, B. (1989). Correlates and dimensions of social behavior: study of female siblings with their mothers. *Child Development, 51,* 529-544.

Cicchetti, D., & Sroufe, L. A. (2000). Editorial: The past as prologue in the futur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2,* 255-264.

Cicirelli, V. G. (1972). The effect of the sibling relationship on concept learning of young children taught by child teachers. *Child Development, 43*, 282-287.

Cicirelli, V. G. (1985). Sibling relationship throughout the life cycle. *The handbook of family psychology and therapy, 1,* 177-217.

Damon, W. (1989). *Child development today and tomorrow.* San Francisco: Jossey-Bass.

Daniels, D. & Plomin, R. (1985). Differential experience of siblings in same family. *Developmental Psychology*, *21*, 747-760.

Dodge, K. A. (1980). Social cognition and children's aggressive behavior. *Child Development, 52,* 162-170.

Dunn, J. (1983). Sibling relationships in early childhood. *Child Development, 54,* 787-811.

Dunn, J. & Kendrick, C. (1982). Siblings : *Love, envy and understanding.*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Furman, W., & Buhrmester, D. (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qualities of sibling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56,* 448-461.

Hall, C. S., & Lindzey, G. (1965). *Theory of personality.*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Hetherington, E. M. (1988). Parents, children, and siblings six years after divorce. In R. Hinde & J. Stevenson-Hinde (Eds.), *Relationships with families* (pp. 311-33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Hodges, W. H. (1961). *Personality factor in objective behavior.*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Huston, T., & Robin, E. (1982).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studying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 902-905.

Jiao, S., Ji, G., & Jing, Q. (1986). Comparative study of behavioral qualities of only children and sibli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57,* 357-361.

Kagan, D. T. (1984). Three computer programs for use in introductory level physics laboratories. *Physics Teacher, 22,* 443-452.

Kauffman, J. M. (1989). *Characteristics of behavior disorders of children and youth* (4th ed.). Columbus. OH: Merrill.

Lamb, M. E. (1978). The development of sibling relationships in fancy: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49,* 1189-1196.

Loeber, R., & Tengs, T. (1986). The analysis of coercive chains between children, mothers, and siblings. *Journal of Family Violence, 1,* 51-70.

Patterson, G. R. (1982). *Coercive family process: A social learning approach,* 3. Eugene, OR: Castalia.

Piaget, J. (1965). *The psychology of intelligence.* San Diego, CA: Harcourt Brace Jovanovich.

Scarr, S. & Grajek, S. (1982).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mong siblings* Hillsdale, NJ: Erlbaum.

Schvaneveldt, J. & Ihinger, M. (1979). Sibling relationships in the family. In W. Burr, R. Burr, R. Hill, F. I. Nye, & I. L. Reiss (Eds.), *Contemp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1* (pp. 446-492).

Stormshak, E. A., Bellanti, C. J., Bierman, C. J., & Conduct Problems Prevention Research Group. (1996). The quality of sibling relationships and development of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ral control in aggressive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2,* 79-89.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

Walters, L. (1982). Are families different from other group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4*, 841-850.

Weinberg, M. K., Tronick, E. Z., Cohn, J. F., & Olson, K. L. (1999). Gender differences in emotional expressivity and self-regulation during early infancy.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35,* 175-188.

Wicks-Nelson, R., & Israel, A. C. (2000). *Behavior disorders of childhood* (4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Prentice-Hall.

Wicks-Nelson, R., & Israel, A. C. (2003). *Behavior disorders of childhood* (5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Prentice-Hall.

Widom, C. S. (1997). Child abuse, neglect, and witnessing violence. In D. M. Stoff, J. Brelling, & J. D. Maser (Eds.), *Handbook of antisocial behavior* (pp. 159-170). New York: Wiley.

Wishart, J. G. (1986). Siblings as models in early infant learning. *Child Development, 57,* 1232-1240.

Zanjonc, R. B., & Markus, G. B. (1975). Birth order and intellectual development. *Psychological Review, 82*, 74-88.

<부　　록>

♠ 설 문 지 ♠

안녕하세요?
이 설문지는 여러분이 평소에 형제·자매와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형제·자매의 관계와 본인의 행동 특성과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공한 자료는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고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질문을 하나씩 잘 읽고 한 문장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답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07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과정 이 수 연 드림

♠ 기초사항 ♠

기입요령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해 주시거나 괄호 안에 '내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1. 성별
   남(　　)
   여(　　)

2. 학년
   (　　)학년

3. 형제·자매수를 적어 주십시오.
   형　(　　)명
   누나　(　　)명
   오빠　(　　)명
   언니　(　　)명
   여동생(　　)명
   남동생(　　)명

♠ 형제관계 ♠

기입요령
※ 각 문항을 읽고 응답 란에 ‘V’ 표시를 해 주십시오.

문항	내 용	응 답				
1	평소에 어머니께서 나와 나의 형제 중 누구에게 더 잘 대하여 주시는가?	거의 언제나 형제	나 보다는 형제	둘 다 같다	형제보다는 나	거의 언제나 나
2	내가 나의 형제에게 할 일을 지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거의 없다	별로 많지 않다	조금 있다	많이 있는 편이다	아주 많이 있다
3	나의 형제가 나에게 할 일을 지시하는 경우는 얼마나 많은가?	거의 없다	별로 많지 않다	조금 있다	많이 있는 편이다	아주 많이 있다
4	나와 형제는 서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보이고 신경을 써주나?	거의 안한다	별로 많이 안한다	조금 한다	많이 하는 편이다	아주 많이 한다
5	나와 형제는 둘이 같이 다니면서 이런 저런 일을 함께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나?	거의 없다	별로 많지 않다	조금 있다	많이 있는 편이다	아주 많이 있다
6	나와 형제는 서로 화내고 속상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나?	거의 없다	별로 많지 않다	조금 있다	많이 있는 편이다	아주 많이 있다
7	나와 나의 형제가 모든 일을 서로 얼마나 이야기 하나?	거의 안한다	별로 많이 안한다	조금 한다	많이 하는 편이다	아주 많이 한다
8	나와 형제는 서로 얼마나 돕고 의지 하나?	거의 안한다	별로 많이 안한다	조금 한다	많이 하는 편이다	아주 많이 한다
9	어머니는 평소에 나와 나의 형제 중 누구에게 신경을 더 써주시는가?	거의 언제나 형제	나 보다는 형제	둘 다 같다	형제 보다는 나	거의 언제나 나
10	형제가 할 줄 모르는 것을 내가 가르쳐 주는 경우는 얼마나 많은가?	거의 없다	별로 많지 않다	조금 있다	많이 있는 편이다	아주 많이 있다
11	내가 할 줄 모르는 것을 형제가 가르쳐 주는 경우는 얼마나 많은가?	거의 없다	별로 많지 않다	조금 있다	많이 있는 편이다	아주 많이 있다
12	나와 형제는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나?	거의 안한다	별로 많이 안한다	조금 한다	많이 하는 편이다	아주 많이 한다
13	나와 형제는 서로에게 얼마나 비겁하고 심술궂게 행동하나?	거의 안한다	별로 많이 안한다	조금 한다	많이 하는 편이다	아주 많이 한다
14	나와 형제는 비밀이나 속마음을 얼마나 털어놓나?	거의 안한다	별로 많이 안한다	조금 한다	많이 하는 편이다	아주 많이 한다
15	어머니가 평소에 더 좋아하는 사람은 나의 형제인가, 나인가?	거의 언제나 형제	나 보다는 형제	둘 다 같다	형제 보다는 나	거의 언제나 나
16	나와 형제는 서로 화가 나서 말다툼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거의 없다	별로 많지 않다	조금 있다	많이 있는 편이다	아주 많이 있다
17	내가 형제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경우는 얼마나 되나?	거의 없다	별로 많지 않다	조금 있다	많이 있는 편이다	아주 많이 있다
18	형제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경우는 얼마나 되나?	거의 없다	별로 많지 않다	조금 있다	많이 있는 편이다	아주 많이 있다
19	나와 나의 형제가 서로에게 얼마나 깊은 정을 느끼고 있나?	거의 없다	별로 정이 없다	조금 있다	정이 많은 편이다	정이 아주 많다
20	시간이 있을 때면 나와 형제는 얼마나 함께 시간을 보내나?	거의 안한다	별로 많이 안한다	조금 한다	많이 하는 편이다	아주 많이 한다
21	나와 형제는 서로 팬히 트집을 잡고 잔소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거의 없다	별로 많지 않다	조금 있다	많이 있는 편이다	아주 많이 있다
22	나와 형제는 서로 얼마나 말다툼을 많이 하나?	거의 안한다	별로 많이 안한다	조금 한다	많이 하는 편이다	아주 많이 한다

♠ *K-YSR* ♠

기입요령
※ 각 문항을 읽고 본인의 행동이 **'자주 그렇다'**면 *2*에 **'가끔 그렇다'**면 *1*에 **'전혀 그렇지 않다'**면 *0*에 'V' **표시**를 해 주십시오.

문항	내 용	응답			문항	내 용	응답		
1	나이에 비해 너무 어리게 행동한다.	0	1	2	22	부모님 말을 안 듣는다.	0	1	2
2	알레르기가 있다.	0	1	2	23	학교에서 말을 안 듣는다.	0	1	2
3	말다툼을 자주 한다.	0	1	2	24	잘 먹지 않는 편이다.	0	1	2
4	천식이 있다.	0	1	2	25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려 지내지 못한다.	0	1	2
5	(남자인 경우) 여자처럼 행동한다. (여자인 경우) 남자처럼 행동한다.	0	1	2	26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0	1	2
6	동물을 좋아한다.	0	1	2	27	다른 사람에게 시샘을 잘한다.	0	1	2
7	자랑을 많이 한다.	0	1	2	28	다른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기꺼이 그들을 돕는다.	0	1	2
8	어떤 일에 집중하거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힘들다.	0	1	2	29	어떤 동물이나 상황, 장소(학교는 제외)를 두려워한다. (구체적 내용 :)	0	1	2
9	어떤 생각들을 떨쳐버리려고 해도 잘 안 된다. (구체적 내용 :)	0	1	2	30	학교에 가는 것이 겁난다.	0	1	2
10	가만히 앉아 있기가 힘들다.	0	1	2	31	나는 내가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동을 할까 두렵다.	0	1	2
11	어른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한다.	0	1	2	32	나는 스스로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0	1	2
12	외롭다고 느낀다.	0	1	2	33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0	1	2
13	혼동이 잘되고 갈피를 못 잡겠다.	0	1	2	34	남들이 나를 해치려한다고 생각한다.	0	1	2
14	잘 운다.	0	1	2	35	나는 가치가 없고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0	1	2
15	나는 꽤 정직하다.	0	1	2	36	나는 사고로 잘 다친다.	0	1	2
16	남에게 못되게 군다.	0	1	2	37	나는 싸움을 많이 한다.	0	1	2
17	공상을 많이 한다.	0	1	2	38	놀림을 많이 받는다.	0	1	2
18	고의로 자해행위를 하거나 자살기도를 한다.	0	1	2	39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닌다.	0	1	2
19	관심을 많이 끌려고 노력한다.	0	1	2	40	환청 : 남들에게 안 들리는 것을 나는 들을 때가 있다. (구체적 내용:)	0	1	2
20	내 물건을 부순다.	0	1	2	41	생각해 보지도 않고 행동한다.	0	1	2
21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순다.	0	1	2	42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0	1	2

문항	내 용	응답			문항	내 용	응답		
43	거짓말을 하거나 남들을 속인다.	0	1	2	60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기 좋아한다.	0	1	2
44	손톱을 깨문다.	0	1	2	61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은 편이다.	0	1	2
45	나는 신경이 날카롭고 긴장되어 있다.	0	1	2	62	운동신경이 둔하고 움직임이 어색하다.	0	1	2
46	내 몸 일부가 움찔거리거나 신경질적인 몸짓을 한다.(구체적 내용:)	0	1	2	63	내 또래보다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아이들과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	0	1	2
47	악몽을 꾼다.	0	1	2	64	나보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과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	0	1	2
48	다른 아이들이 나를 싫어한다.	0	1	2	65	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	0	1	2
49	어떤 일은 대부분의 다른 아이들보다 내가 더 잘 할 수 있다.	0	1	2	66	똑같은 행동을 계속 되풀이 한다. (구체적 내용:)	0	1	2
50	나는 지나치게 겁이 많거나 불안 해 한다.	0	1	2	67	가출한다.	0	1	2
51	어지럼증이 있다.	0	1	2	68	고함을 많이 지른다.	0	1	2
52	나는 지나치게 죄책감을 느낀다.	0	1	2	69	나는 숨기는 것이 많고 남에게 속을 털어놓지 않는다.	0	1	2
53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	0	1	2	70	환시 : 남들에게 안 보이는 것을 나는 볼 때가 있다. (구체적 내용:)	0	1	2
54	매우 피곤하다고 느낀다.	0	1	2	71	나는 자의식이 지나치고 쉽게 무안해 한다.	0	1	2
55	체중이 너무 나간다.	0	1	2	72	불을 지른다.	0	1	2
56	의학적으로 밝혀진 원인 없이 나타나는 신체적 문제가 있다.				73	손재주가 있는 편이다.	0	1	2
	1) 몸이 쑤시고 아프다.	0	1	2	74	으스대거나 남을 웃기려고 싱거운 짓을 한다.	0	1	2
	2) 두통	0	1	2	75	수줍어한다.	0	1	2
	3) 메스꺼움	0	1	2	76	보통 아이들보다 잠을 적게 잔다.	0	1	2
	4) 눈의 이상 (구체적 내용:)	0	1	2	77	보통 아이들보다 잠을 많이 잔다.(낮이나 밤에)(구체적 내용:)	0	1	2
	5) 발진 혹은 기타 피부의 이상	0	1	2	78	상상력이 풍부하다.	0	1	2
	6) 배앓이 혹은 복통	0	1	2	79	나는 언어에 문제가 있다. (구체적 내용:)	0	1	2
	7) 구토	0	1	2	80	내 권리는 지킨다.	0	1	2
	8) 기타 (구체적 내용:)	0	1	2	81	우리 집의 물건을 훔친다.	0	1	2
57	남을 신체적으로 공격한다.	0	1	2	82	우리 집 아닌 다른 곳에서 물건을 훔친다.	0	1	2
58	내 피부나 신체의 다른 부위를 뜯거나 후빈다. (구체적 내용:)	0	1	2	83	필요 없는 물건을 모아 둔다. (구체적 내용:)	0	1	2
59	나는 상당히 붙임성이 있다.	0	1	2	84	남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행동을 한다. (구체적 내용:)	0	1	2

문항	내 용	응답		
85	남들이 알면 이상하다고 여길 생각을 한다. (구체적 내용:)	0	1	2
86	고집이 세다.	0	1	2
87	내 기분이나 감정은 갑자기 변하곤 한다.	0	1	2
88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다.	0	1	2
89	나는 의심이 많다.	0	1	2
90	욕을 하거나 상스러운 말을 쓴다.	0	1	2
91	자살에 대해 생각한다.	0	1	2
92	남들을 웃기기 좋아한다.	0	1	2
93	나는 지나치게 수다스럽다.	0	1	2
94	남을 잘 놀린다.	0	1	2
95	나는 성미가 급하다.	0	1	2
96	성(Sex)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한다.	0	1	2
97	남들을 신체적으로 해치겠다고 위협한다.	0	1	2
98	남들을 돕기를 좋아한다.	0	1	2
99	청결, 정돈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	0	1	2
100	잠을 잘 못 잔다. (구체적 내용:)	0	1	2
101	수업을 빼먹거나 학교에 무단결석하기도 한다.	0	1	2
102	기운이 별로 없다.	0	1	2
103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 한다.	0	1	2
104	다른 아이들보다 소란스럽다.	0	1	2
105	술을 마시거나 치료목적으로 쓰는 것 이외의 약물을 사용한다. (구체적 내용:)	0	1	2
106	다른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하려 애쓴다.	0	1	2

문항	내 용	응답		
107	좋은 농담하는 것을 즐긴다.	0	1	2
108	나는 인생을 편하게 사는 것이 좋다.	0	1	2
109	힘이 닿는 한 남들을 도우려 노력한다.	0	1	2
110	(남자인 경우)나는 여자가 되고 싶어 한다. (여자인 경우)나는 남자가 되고 싶어 한다.	0	1	2
111	남들과 관계를 맺지 않으려 한다.	0	1	2
112	나는 걱정이 많다.	0	1	2

※ 자신의 느낌이나 행동, 관심에 대해 더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아래에 써 주십시오.

_____

_____

_____

※ 위와 같은 문제들로 하여 전문가(상담소 혹은 정신과 전문의)에게 가본 일이 있으십니까?

☐ 예 ☐ 아니오

없으시다면, 전문가에게 보일 필요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 예 ☐ 아니오

앞으로 전문가에게 갈 예정이십니까?

☐ 예 ☐ 아니오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특수교육	학 번	20058009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이 수 연 한문: 李 垂 衍 영문: Suyoun Lee				
주 소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포스코 더샵 103-2003				
연락처	016-310-3005 E-MAIL : leesu3339@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청소년의 형제관계와 정서·행동문제의 관련성 연구 영문 : A Study on Relationships between Sibling Relations and Emotional/Behavioral Problems in Adolescents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 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 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 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08 년 2 월

저작자 : 이 수 연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